

경사연합동보고서 04

## 고용평등과 저출산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 머 리 말

현재 우리사회는 많은 사회경제적 정책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고령화입니다. 한국은 2004년에 1.16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 아래로 출산율이 낮아진 이래,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전환을 적시에 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 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과 가족, 자녀와 사회, 국가의 미래와 사회연대, 성평등, 가족생활과 직장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성숙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으로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체계화하는 이 때에, 한국보다 앞서서 저출산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OECD, 스웨덴, 프랑스 및 일본의 정책사례를 검토하고, 그 효과성을 논의하는 이번 국제공동 정책연구를 통하여 국내외 연구진들이 함께 통찰력 있는 연구와 유익한 정책을 제시한 것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OECD와 Rand Europe,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인구및사회보장연구소의 저명한 학자와 국내 주요 3개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각 국가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 스웨덴, 프랑스, 일본은 가사와 육아의 사회화 정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육아인프라의 특성, 노동시장의 구조 등 결혼·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제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 상이합니다. 이 다양성이 어떻게 저출산을 진단하고 정책을 구상·집행하는데 반영되어 왔는지를 과

학적으로 점검하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OECD내의 모든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에서 연유하는지 그 맥락을 면밀히 짚어보고, 다양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한국에 적합한 정책을 구상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 들 국가에서 결혼과 출산에 방해요소를 어떻게 제거해 왔고,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민정책은 사회의 여건에 따라 어떠한 의미와 효과가 있었는지를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제 그 경험에서 시사하는 바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현재의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한국정부는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가 실효성 있는 좋은 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는 국제 협동연구 중 한국노동연구원의 장지연 연구위원이 담당한 연구에 해당합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좋은 의견을 주신 홍석표 부연구위원, 이상영 부연구위원, 12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백화종 연구위원, 최경수 연구위원(KDI), 변용찬 연구위원, 김정석 교수, 신은주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제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도움을 주신 신인철 주임연구원, 강주희, 조숙경, 정윤선, 김희경 연구원, 최은희(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학), 김태연(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씨에게도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 목 차

요약 .....	9
제1장 서론 .....	11
제1절 저출산은 문제인가? .....	11
제2절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	12
제3절 연구과제 .....	12
제2장 젠더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 .....	14
제1절 저출산 현상 정착의 메커니즘 .....	14
제2절 저출산 원인에 관한 논의 .....	15
제3장 출산율과 노동시장 기회구조의 관련성에 관한 국가간 비교 .....	20
제1절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에 관한 분석틀 .....	20
제2절 자료 및 변수의 정의 .....	22
제3절 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련성: 기술적 분석 .....	25
제4절 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련성 .....	31
제4장 우리나라의 현실: 취업여성의 출산조절 경험 .....	37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40
참고문헌 .....	43

## 표 목 차

〈표 1〉	합계출산율 (2003) .....	16
〈표 2〉	성에 대해 미분화된 시각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 .....	20
〈표 3〉	변수의 정의 .....	24
〈표 4〉	출산율 하위 5개국의 보육지원정책 및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 .....	28
〈표 5〉	출산율 상위 5개국의 보육지원정책 및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 .....	28
〈표 6〉	시계열회귀분석결과: 고용평등변수 포함 .....	34
〈표 7〉	시계열회귀분석결과: 고용평등변수+가족정책 .....	35
〈표 8〉	시계열회귀분석결과: 고용평등변수+가족정책+ 경제여건 .....	36
〈표 9〉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숨겨진 선택: 이념형적 구분 ..	37
〈표 10〉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숨겨진 선택: 응답자의 분포 ..	38
〈표 11〉	출산휴가 이용시 우려되었던 점 .....	38
〈표 12〉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동의 정도 .....	39

## 그림목차

[그림 1] 여성의 경제활동수준별 출산율 .....	18
[그림 2] 저출산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	19
[그림 3] 노동시장의 여성비와 출산율의 관련성 .....	29
[그림 4] 남성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과 출산율의 관련성 .....	30
[그림 5] 여성의 시간제고용 비율과 출산율의 관련성 .....	30

Abstract

## Equality of Employment and Low Fertility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socio-economic reasons of low fertility in Korea and to develop relevant policies to overcome low fertility. Korea is currently facing a serious and steady declining of fertility rate(TFR=1.16 in 2004). To draw a proper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here the lowest fertility problem has officially started to be tackled by the government, an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has been performed. This is a part of the research project.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n the background of recent policy developments in Korea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esearch findings were presented and discussed in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hich was held in December at Seoul.

Low Fertility Research Team at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cts as the general managing body for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which was held on 15<sup>th</sup> ~16<sup>th</sup> on December at Seoul.

## 요 약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낮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일과 자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유자녀 여성노동자의 3/4는 자녀수나 출산시기를 조절하거나 퇴직을 고려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두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원인을 찾아보아야한다. 첫째는 양육 책임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개별 가정에 맡겨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거의 전적으로 부과되어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기혼유자녀 여성은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것이 출산과 경제활동의 지속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이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은 커리어관리 뿐 아니라 고용유지 그 자체를 위협할 정도이며, 기혼유자녀 여성은 취업기회와 훈련, 배치, 승진 등 모든 고용상 기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데 남녀노동자가 동의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선진국들은 보육지원정책과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출산율과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노동시장의 성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지표인 성별 임금격차 역시 출산율과 높은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반대로 격차가 큰 국가는 대체로 출산율에서 하위에 있는 국가들이었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도 출산율과는 뚜렷한 부의 관련성을 보인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 발견이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기회의 확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언제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무급의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고,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 성평등을 확실하게 추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제근로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여성고용확대와 출산장려의 어느 쪽으로도 성공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패러다임으로는,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가치를 인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보육서비스확대를 통하여 돌봄노동을 탈가축화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저출산은 ‘문제’인가?

저출산을 ‘문제’로 보는 시각이 더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출산은 전적으로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며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할 분야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많이 낳아라, 적게 낳아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행위의 집합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때에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 개입의 방식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여건에 변화를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이 되어야 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출산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은 과거의 출산정책(산아제한정책)이 여성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경험에 근거한 우려일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 행위의 집합적 결과인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가? 가족가치의 붕괴나 인구감소로 인한 국력약화 때문에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무너져간다는 ‘가족의 가치’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있어서 각기 매우 다른 것일 수 있을뿐더러 다양한 가족형태야말로 개인의 결정권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지 전체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인구의 감소도 그 자체로 우려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인구규모에서 바로 국력이 나오는 것이 아닐뿐더러 경쟁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의미에서의 ‘국력’ 운운이 국민의 삶의 질에 앞서서 개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 즉 인구의 고령화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구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명)을 한참 밑도는 저출산현상은 인구피라미드를 역삼각형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수준에서 초저출산율까지 너무나 단기간에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역삼각형 피라미드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를 막론하고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이 훼손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저출산 문제에 국가가 올바른 정책수단을 가지고 개입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 제2절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수단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상의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하고,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제자리를 맴돌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 사회의 복지체계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국민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연구를 하는 복지국가론은 노동자인 남성을 표준적인 인간으로 간주하고 설명하던 데서 탈피하여 여성의 경험과 ‘돌봄 노동(care work)’의 의미를 반영하는 젠더관점을 통하여 한층 설명력을 더하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복지국가체계가 ‘돌봄 노동’의 역할을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 역시 젠더시각에서 볼 때 그 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리라고 본다. 이 글은 젠더적 관점에서 저출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현상에 대한 이해, 원인에 대한 분석, 정책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제3절 연구과제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은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운 여

건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원인은 다시 크게 두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첫째, 양육의 사회화 수준이 낮고 가족 내에서도 부부간에 책임이 공유되지 않아서 여성의 양육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다. 둘째, 여성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므로 출산을 연기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던 두 번째 요인에 대하여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2절에서는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 패러다임을 젠더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고용평등과 출산 간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을 도출한다. 3절에서는 OECD 국가의 출산율 및 노동시장 지표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고용평등과 출산율 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4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양육과 경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들의 출산조절 경험에 대한 경험적 조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고자 한다. 5절에서는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제2장 젠더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의 원인

### 제1절 저출산 현상 정착의 메커니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7(2003)~1.19(2004)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물론 여성들이 과거보다 자녀를 적게 낳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이러한 현상은 두 가지 구분되는 기제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출산시기(tempo)의 변화이고, 둘째, 양(quantum)의 변화이다. 최근의 여성들은 과거의 세대에 비하여 혼인과 첫 자녀 출산연령이 현저히 높는데 이것이 출산력 저하를 주도한 변화요인이라고 한다(은기수 2005). 혼인한 여성들의 자녀수 자체도 줄어들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혼인과 첫 자녀 출산의 연기라는 것이다. 첫 자녀 출산의 연기는 결국 생애 총 자녀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출산시기의 연기요인이나 유배우 여성의 출산력 감소 요인은 저출산현상을 분해(decompose)함으로써 그 기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저출산의 ‘원인(즉, deep structure)’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는 이유, 유배우 여성이 자녀수를 줄이는 이유는 다시 논의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저출산의 원인이 파악될 것이다.

혼인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가치관이 변화하여 선호하는 자녀수가 줄어들게 되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가치관은 왜 변화하게 되었으며, 가치관과 객관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는 어떤 관계 속에서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 제2절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논의

은기수(2005)는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상황변화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식의 변화 및 괴리에 의한 것이다. 먼저 그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율 수준으로 떨어진 시기가 1997년말 외환위기와 그 이후의 경기불황기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면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직장안정성이 약해지며, 주택마련이 어려워지는 경제적 현실이 혼인과 출산의 연기를 초래했다고 한다. 남성에게 아직도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요구하는 현실이 엄연한 가운데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기불황은 혼인과 출산을 연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일시적으로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상의 수준에서 그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진 과정은 경기순환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경기불황에서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는 데서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

저출산의 두 번째 원인으로 은기수(2005)는 강한 가족주의 의식이 잔존하고 성불평등이 심각한 현실이 여성들로 하여금 혼인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세계적으로 출산력 수준이 낮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이태리를 포함하여 남부유럽 등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곳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다(은기수 2005; McDonald 2005)(표 1 참조).

### ·Group1

- Nordic
- Western Europe  
(French-Dutch speaking)
- English-speaking

### ·Group2

- Southern Europe
- Western Europe  
(German-speaking)
- East Asia

〈표 1〉 합계출산율 (2003)

Group1 Countries	TFR	Group2 Countries	TFR
United States(2002)	2.01	Portugal	1.44
Iceland	1.99	Switzerland	1.41
Ireland	1.98	Malta	1.41
New zealand	1.96	Austria	1.39
France	1.89	Germany	1.34
Norway	1.80	Spain	1.29
Denmark	1.76	Italy	1.29
Finland	1.76	Japan	1.29
Australia	1.75	Greece	1.27
Netherlands	1.75	Singapore	1.26
Sweden	1.71	Republic of Korea	1.19
United Kingdom	1.71	Hong Kong SAR	0.94
Luxembourg	1.63		
Belgium	1.61		
Canada(2002)	1.50		

주: McDonal(2005) 인용

성평등의식이나 가족주의 가치관에 있어서 남녀간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태현 2005; 이재경 2005).

2인 소득가구가 늘어나고 남성의 완전한 생계부양자 역할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적 영역의 책임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 남성 또한 보살피는 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므로 결과적으로 **돌봄의 공백**이 생겨나게 된다. 공적 영역에서의 동등 기회라는 제도적 평등은 사적 영역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적 영역의 성별분업은 계속해서 자연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여성의 이중부담과 남성의 '지연된 혁명'은 여성의 혼인기피 또는 출산연기라는 대안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이재경 2005; Bold는 인용자)

이상과 같은 기존의 논의들 속에서 필자가 선택하게 되는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남성과 여성간에 성평등의식의 변화 속도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이 때문에 의식의 괴리가 생기며, 또한 여성의 의식변화를 사회제도나 정책이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은 출산과 돌봄의 책임을 혼자 떠안는 선택은 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이데올로기적으로나마 인정하고 가족주의가 널리 받아들여지던 과거에는 여성이 많은 자녀를 낳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생애를 거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임금노동과 무급돌봄노동의 가치는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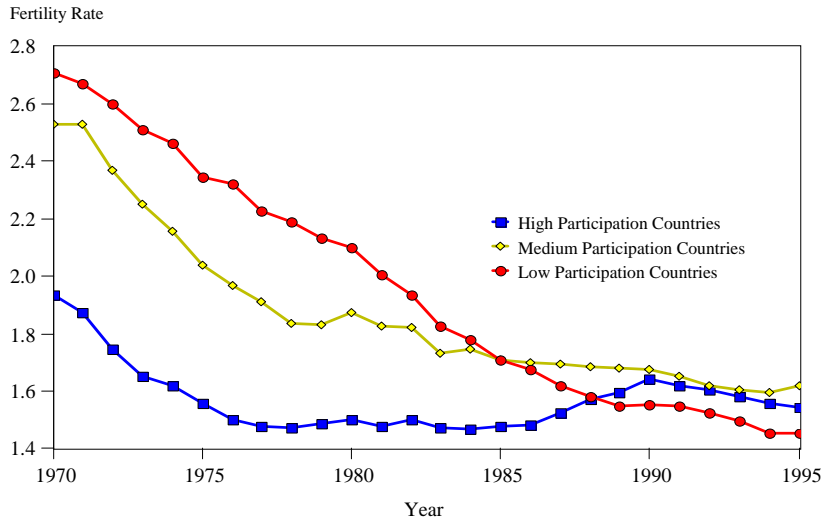
우리는 흔히 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낳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예전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어왔다. 경제학자들은 제한된 시간과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출산양육 간에 선택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이것은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에서 지지되었다(Becker 1965; Schultz 1974).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논의는 합계 출산율이 5~6 수준에서 2~3 수준까지 떨어지는 기간동안에는 적합성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되었다.주1) 최근의 통계지표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도 낮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노르딕국가들과 미국 등의 국가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동시에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국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이 상호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이 두 변수가 대체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과 ‘자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높은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대할 수 없다.

주1) Chénais(1996)는 개발국가에서는 성평등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에서는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것을 ‘페미니스트 패러독스’라고 명명하였다 (이재경 2005).



[그림 1] 여성의 경제활동수준별 출산율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은 둘 다 우리나라보다 높다. 즉, 다른 선진국들이 자국의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활동과 출산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는 동안, 우리나라 여성은 아직도 ‘일이나 자녀냐’ 하는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사실 여성의 소득활동 참여는 대부분의 사회계층에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여성들은 양육과 직장생활의 두 가지 짐을 지고 ‘자녀에게 충실한 엄마’와 ‘책임을 다하는 직업여성’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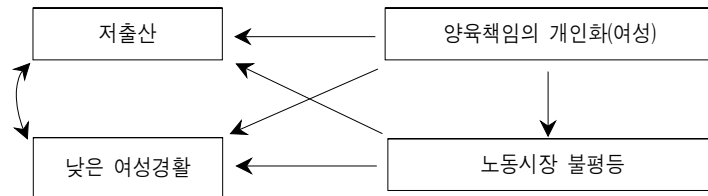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저출산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는 사회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과 자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과 자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양육책임이 사회화되어 있지 못하고 개인(여성)에게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출산(재생산)이라는 여성의 고유 역할은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하며, 비정규직의 비율은

높고 전문직과 관리직의 비율은 낮으며, 평균임금 면에서도 남성과의 차이를 좁혀가지 못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초래하는 문제의 핵심에는 여성이 일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양육의 책임이 존재한다. 가부장적 의식의 온존 속에서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성역할의 분리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고, 이는 주요 직책에서 여성배제와 경력단절 등을 매개로하여 노동시장과 경제적 성취의 전 영역에서 여성의 열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양육의 문제를 사적인 일로 치부하여 개별 가정에서 알아서 할 일로 방치하는 것은 곧 여성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의 장에 들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책임의 개인화와 함께 노동시장의 성불평등은 저출산과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를 동시에 초래한다.

[그림 2] 저출산과 낮은 경제활동참가를 설명하는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



노동시장 불평등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는 고학력의 전문직과 관리직 여성과 그밖에 생산직, 판매직, 서비스직, 단순노무 등의 영역에서 약간 다른 이유에서지만 둘 다 출산을 연기할 중요한 메커니즘이 작동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전문직과 관리직 여성의 경우는 안정적인 지위에 도달할 때까지 출산을 연기하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다. 단순직의 경우는 대체로 출산이후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가능한 한 출산을 미루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출산과 함께 퇴직하였다가 자녀양육기를 지내고 나서 다시 노동시장에 저임금 단순직으로 재진입하는 생애과정(이러한 생애과정을 이해한다면 성평등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다는 가설이 도출될 수 있다.

## 제3장 출산율과 노동시장 기회구조의 관련성에 관한 국가간 비교

### 제1절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에 관한 분석틀

한 국가의 출산에 관련된 정책은 독립적인 ‘출산정책(또는 인구정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아동복지정책 등 다양한 관련 사회정책의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다양한 사회정책의 특성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히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연관성 속에서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적 특성을 발견해 내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여기에 독립적인 출산(인구)정책의 존재여부를 추가하여 개별적인 국가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이념형적인 유형화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필자는 여성의 경험, 즉 양육자로서의 경험과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모두 반영하면서 복지정책 또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틀을 <표 2> 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장지연 2004). 이 틀은 유급노동과 무급의 돌봄 노동을 동시에 살펴보아야함을 시사하며, 시민권적 권리의 차원은 접근권과 자유, 즉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표 2> 성에 대해 미분화된 시각을 수정하는 포괄적인 분석틀

		권리의 차원	
		적극적권리	소극적권리
노동의 종류	유급노동	노동권	탈상품화
	(무급)돌봄노동	부모권	탈가족화

접근권은 유급노동이나 무급양육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유급노동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권’으로, 무급의 보살핌 노동에 대한 권리는 ‘부모권’ 또는 ‘양육권’으로 명명하였다. 소극적 권리는 유급노동이나 무급양육노동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유급노동, 즉, 시장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가 ‘탈상품화’로 개념화되고, 무급양육노동, 즉, 가부장제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는 ‘탈가족화’로 개념화할 수 있겠다.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어 돌봄의 공백이 생긴 결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때,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을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길인데, 이러한 방법이 작동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다행히 그리 많지 않다. 선진국에서 지금까지 취해온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 한가지 또는 두 가지의 결합이다. 첫째는 자녀를 직접 양육할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원하는 방식, 즉, 돌봄노동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양육수당이나 주부임금의 개념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여성이 담당해온 무급노동에 대하여 그 의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남편으로부터의 독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 돌봄노동에 대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댓가는 언제나 보잘 것 없었으며 따라서 이런 수당에 의지해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담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희박해 보인다. 둘째는 돌봄노동을 가족으로부터 떼어내어 시장화 또는 공공서비스화 하는 방식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선진국이든지 이러한 길을 걸어왔는데, 이런 방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을 저임금노동자화하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이 있었다.주2)

주2) 이러한 유형화를 프레이저(Fraser 2000)의 대안적 젠더질서의 용어로 다시 이야기 해 보자면, 돌봄노동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직접 양육권을 지원하는 것은 ‘돌봄제공자 동격모형(Caregiver Parity model)’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을 임금노동자화 하면서 돌봄노동은 탈가족화하는 방식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형(universal breadwinner model)’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성의 역할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공히 돌봄노동과 임금노동을 공유하는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것을 프레이저는 제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 양육자 모형(universal caregiver model)’이라고 불린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면, 스웨덴은 노동권과 탈가족화, 부모권과 탈상품화를 동시에 강조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강조점을 구분하자면 여성을 노동자로 정의하면서 돌봄노동은 공공서비스화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있다고 판단된다.

프랑스는 명시적으로 여성의 '선택'을 강조하면서 돌봄노동의 탈가족화화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여성의 노동권과 부모권 사이에 강조의 강약을 따지기 어려워 보인다. 독일은 여성의 노동권과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보다는 부모권에 무게가 실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양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후한 보상을 하는 국가이며, 가족주의적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국가로 볼 수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또 한 가지 차이는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명시적인 출산장려정책(인구정책)을 취하는데 비하여 독일은 양차대전의 국제적 책임 등의 이유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을 명시적으로 취한 적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은 여성의 노동권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돌봄노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없다. 따라서 돌봄노동은 공공서비스화가 아니라 시장화를 통해서 탈가족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돌봄노동의 여성책임을 완화하는데 뚜렷한 한계를 남기고 있다.

이들 국가의 정책적 패러다임은 여성노동시장의 지표나 가족정책의 지출 비중 등 다음 장에서 다루는 변수들에 의해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포착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성평등달성에 주력하는 정책, 돌봄노동의 가치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정도, 보육서비스를 통해서 돌봄노동을 탈가족화하는 정도 등이 출산이라는 여성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자료 및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 수준이 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제도적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 단위의 자료를 활용한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출처에서 나온 것이다.

우선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CWS)”은 Evelyne Huber, Charles Ragin, John D. Steohens가 노스웨스턴 대학과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의 지원으로 OECD와 ILO자료를 재구성한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사회부문 재정지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며, 노동시장 관련 지표와 인구학적인 지표를 보완적으로 제공한다.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약 35년간의 19개국의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둘째, OECD의 “1980~1998 20years of Social Expenditure(SOCX)” 데이터는 1980년부터 1998년까지 25개국의 공적사회비용과 필수적 사적사회비용을 13가지 사회정책 영역으로 나누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을 위해서 가족서비스영역,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영역, 실업관련 영역을 1980년부터 1994년까지 19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셋째,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 2(CFBD)”는 캐나다 켈거리대학의 Gauthier교수가 OECD와 개별 국가자료를 재구성한 것으로, 1970년부터 2000년까지 OECD 22개국의 가족수당의 내용을 구성하는 현금수당, 자녀수에 따른 세금공제에 관한 내용 및 인구학적 변수와 경제학적 변수를 포함하는 데이터이다.

마지막으로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 데이터는 1960부터 현재까지 매년 데이터를 갱신하면서 주요 18개국을 중심으로 200여개국의 사회, 경제, 재정, 자원, 환경분야로 나누어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에서는 1980년에서 1994년까지 18개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을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표 3〉 변수의 정의

	변수명	정의 및 조작	출처	원자료 출처
unit	국가	국가명, OECD 19개국		
time	년도	년도, 1980~1994 15개년도		
종속 변수	출산율	합계출산율		
고용 평등 변수	여성비	취업자 중 여성의 비율(%), (여성취업자/전체취업자)×100	CWS	OECD, Labor Force Statistics
	여성임금비	제조업에서의 시간당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 비율: (여성임금/남성임금)×100	CFBD	ILO
	여성시간제 고용비율	여성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		
가족 정책	가족수당	가족관련 수당 중에서 모성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로 아동수당의 비중이 큼;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SOCX	
	보육서비스 지출	공보육체계에 지출되는 비용;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SOCX	
	모성휴가 기간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합한 기간(단위:주)	CFBD	
경제 환경 (통제 변수)	실업률	실업률(%)	CWS	OECD, Labor Force Statistics
	적극적노동 시장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지출되는 비용;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SOCX	
	서비스업 고용비중	전체 취업자 중 서비스직 종사자	WDI	
	GDP	Real GDP per capita(US\$), 1985년 구매력 기준	CWS	OECD

주: 이탤릭체는 필자의 조작

자료: CFBD: Gauthier, A.H. (2003),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 2 (University of Calgary)

CWS: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1960-1994, Assembled by Everlyne Huber, Charles Ragin, and John D. Stephens (1997)

ILO: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Various years)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Tax/Benefit position of Production Workers

Unesco: On-line statistics: [www.uis.unesco.org/en/stats/stats0.htm](http://www.uis.unesco.org/en/stats/stats0.htm)

USCB: United State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base, On-line: [www.census.gov/ipc/www](http://www.census.gov/ipc/www)

SOCX: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WDI: World Bank

### 제3절 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련성: 기술적(descriptive) 분석

1994년 시점에서 볼 때 출산율이 높은 상위 5개국은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의 순이었다. 그 뒤를 덴마크와 핀란드가 뒤쫓고 있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크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노르딕국가들과 영어권의 신대륙국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출산율이 낮은 하위 5개국은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일본, 오스트리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 국가의 출산율수준과 노동시장의 성평등수준이 정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가설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성평등수준뿐 아니라 보육지원정책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에 공히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표 4>와 <표 5>는 출산율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지원정책과 노동시장지표에 대하여 각 국가의 순위를 제시한 것이다. 색깔한 국가는 각각 출산율 하위 5개국과 상위 5개국이다. 이 표를 통해서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혹은 낮은 국가는) 보육지원정책과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는 확실히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지출 상위 4개국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는 출산율 상위 7개국에 속하는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달리 GDP대비 지출비율로 볼 때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의 보육서비스 지출은 중위 수준에는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탈리아와 일본, 오스트리아 등 출산율 하위 국가의 보육서비스 지출비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독일은 보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는 예외적인 국가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보육비 지출과 출산율의 관련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라는 예외적인 국가를 제외하면,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선진



국 중에서 가족수당 지출이 적은 나라는 출산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당(또는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동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좋은 제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거나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는 제도이다.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이 다른 모든 정책목표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 이상 가족수당의 도입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가설과는 달리 출산 및 육아휴가 기간은 출산율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이 출산휴가기간을 매우 짧게 설계한 국가로서 영유아기 보육을 휴가제도를 통해서 부모의 직접보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갖고 있지 않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설명은, 출산·육아휴가기간 자체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휴가기간이 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기회구조는 여성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국 장기간의 휴가기간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에서 임금격차와 시간제근로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식의 여성노동정책은 출산율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성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와 출산율과의 관련성은 매우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여성비’가 높은 국가들이었다. 여성비가 높은 순으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미국, 노르웨이는 모두 출산율 7위안에 드는 국가들이다. 반대로 출산율 하위 5개국은 노동시장의 여성비 측면에서는 분석대상 18개 국가 중에서 모두 10위권 밖의 하위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도 분명히 드러났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미국 등의 국가는 성별임금격차도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인 반면,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모두 성별임금격차가 큰 국가들이었다. 여성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시장에서 절반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여성취업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은 출산율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성이 시간제근로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양립’을 수월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시간제근로 비율은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갖게 되는 기회구조가 남성과는 매우 다르고 불평등하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간제근로 비중은 출산율과 부의 관련성을 나타낼 것이다. 관찰결과로 볼 때,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율 측면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시간제비율이 양극화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여성의 시간제근로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웨덴과 미국과 같은 국가는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정책의 성격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에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해 보자면,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보육지원정책에 대한 재정투입 비율이 높아서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노동시장의 성평등도 역시 높은 국가이다. 그 결과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모두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예외적인 국가로 보아야한다. 보육정책이나 기타 사회복지비용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가설에 부합하겠으나 이민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모두 높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이나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보육의 사회화 수준이 낮으며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도는 높은 국가이다. 그 결과 출산율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낮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이탈리아보다도 모든 면에서 나쁜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해나가야 할 것인지는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표 4〉 출산율 하위 5개국의 보육지원정책 및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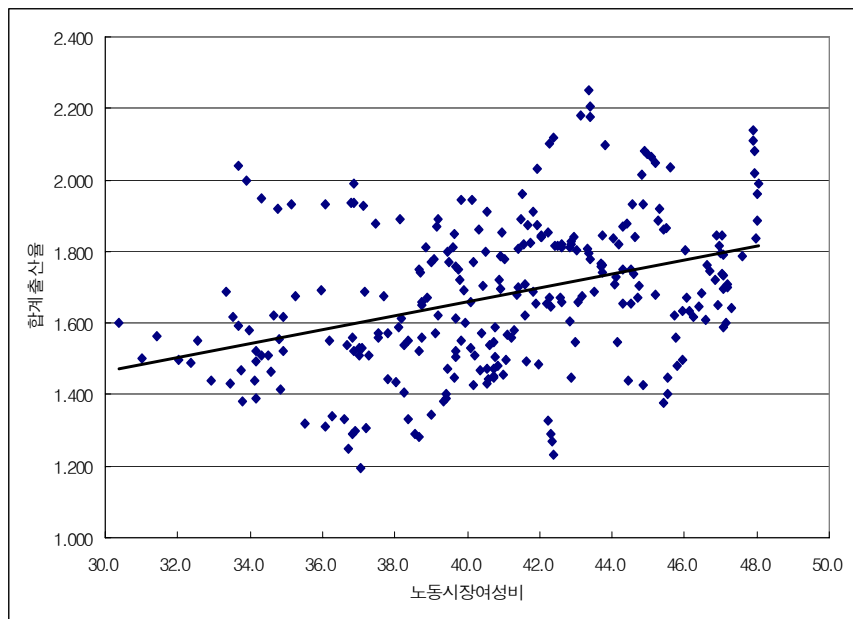
순위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출산+육아휴	여성비	임금차
1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웨덴
2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3	뉴질랜드	핀란드	독일	덴마크	호주
4	벨기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미국	덴마크
5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6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	캐나다	미국
7	핀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프랑스
8	영국	호주	벨기에	뉴질랜드	핀란드
9	노르웨이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
10	스웨덴	벨기에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11	스위스	뉴질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12	덴마크	미국	호주	독일	독일
13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14	캐나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15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위스
16	미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	룩셈부르크
17	일본	일본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18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일본

〈표 5〉 출산율 상위 5개국의 보육지원정책 및 노동시장 불평등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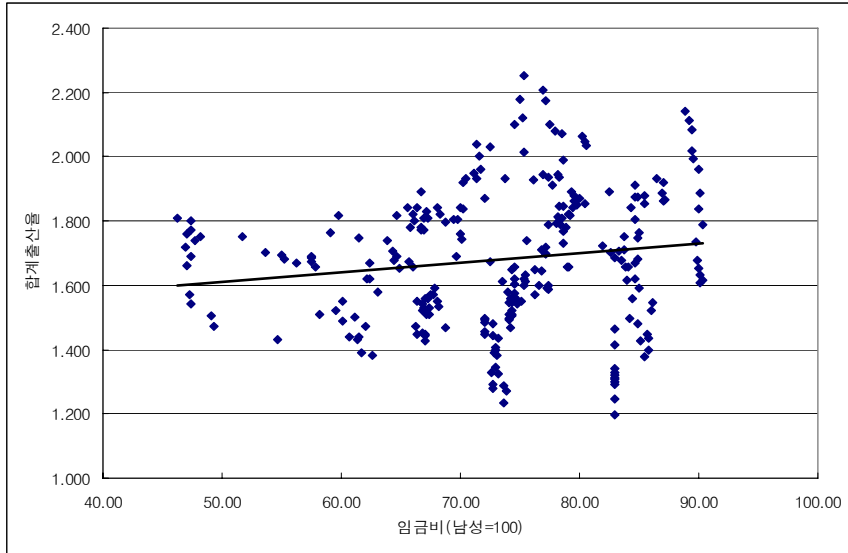
순위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출산+육아휴	여성비	임금차	시간제비율
1	룩셈부르크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웨덴	네덜란드
2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3	뉴질랜드	핀란드	독일	덴마크	호주	영국
4	벨기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미국	덴마크	호주
5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노르웨이
6	호주	룩셈부르크	덴마크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7	핀란드	네덜란드	네덜란드	프랑스	프랑스	일본
8	영국	호주	벨기에	뉴질랜드	핀란드	벨기에
9	노르웨이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10	스웨덴	벨기에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11	스위스	뉴질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12	덴마크	미국	호주	독일	독일	룩셈부르크
13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4	캐나다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15	이탈리아	캐나다	영국	스위스	스위스	프랑스
16	미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17	일본	일본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18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일본	핀란드

다음에 제시한 그림은 OECD 18개국의 15개년 자료를 풀링하여, 노동시장의 성평등도를 나타내는 변수와 출산율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간단히 그려본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 여성중 시간제 고용의 비율 등은 모두 합계출산율과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나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는 것이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이러한 상관관계가 유효한지는 다음 절에서 분석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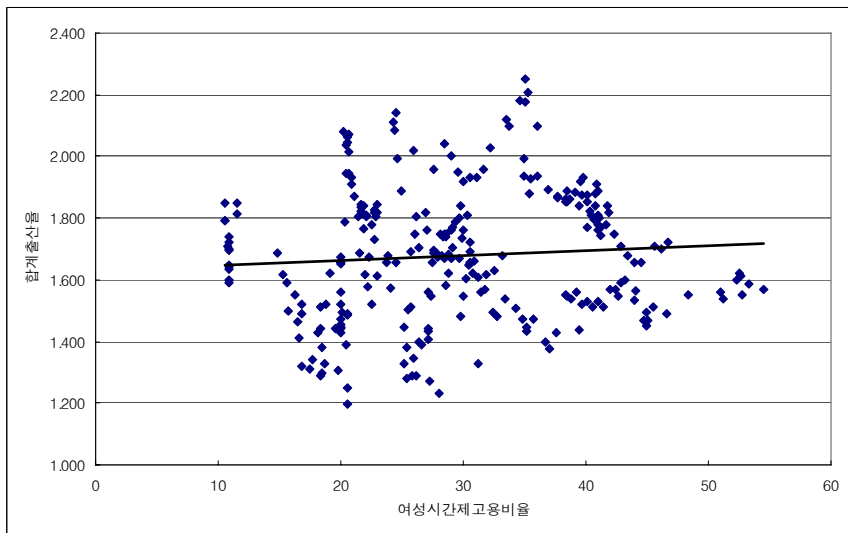
[그림 3] 노동시장의 여성비와 출산율의 관련성



[그림 4] 남성임금 대비 여성의 임금과 출산율의 관련성



[그림 5] 여성의 시간제고용 비율과 출산율의 관련성



## 제4절 고용평등과 출산율의 관련성: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regression

### 1. 분석모형

여기서 추정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text{수식 1: } y_{it} = \beta_1 X_{it} + \gamma_1 Z_{it} + \varepsilon_{it}$$

$y_{it}$ 는  $i$ 국의  $t$ 년도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는 종속변수이다. 설명변수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X_{it}$ 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적으로 제시하는 고용평등지표 변수들이고,  $Z_{it}$ 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 온 가족정책 변수들이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정책 변수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족정책과 관련된 변수로 보육서비스지출, 총모성휴가일수, 가족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고용평등 지표로는 노동시장의 여성비율, 남성대비여성 임금, 여성의 시간제근로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통제변수로서 실업률, 서비스업고용비율, 구매력기준의 1인당GDP 등이 포함되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기서 활용되는 자료는 19개 국가의 15개년도 자료이다. 즉, 국가별 횡단면 자료가 시계열로 되어 있는 풀링된 자료(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이다. 이러한 풀링된 자료를 그냥 최소자승추정법(OLS, Ordinary Least-Square Regression)으로 추정할 경우, 국가별 차이나 연도별 차이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패널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서 국가별 차이가 국가의 고유한 고정된 특성으로 모두 설명된다고 가정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이나 국가별 차이가 시간에 따라 국가별로 임의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임의효과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적용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은 국가별로 시간에 따른 분산만을 추정 정보로 활용하고 국가별 차이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임의효과모형은 통제

변수와 국가특수적인 에러항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 추정치가 편의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인 국가특수적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위한 Breush and Pagan LM 검정과 국가특수적 효과가 다른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그에 따라 고정효과 추정치와 임의효과 추정치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한 Hausman 검정을 해보았다.

Breush and Pagan LM 검정 결과 임의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Hausman 검정 결과는 국가별 고정효과가 다른 설명변수들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의효과 모형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횡단면 자료 수에 비해서 시계열자료 수가 상대적으로 긴 자료이기 때문에, 시계열적으로는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횡단면 자료에서도 오차항들이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모형보다는 오차항 분산이 횡단으로도(또는 시계열적으로도) 랜덤하다고 보고 분석하는 일반화된 최소자승회귀(GLS, Generalized Least Square Regression) 추정을 하였고,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도 이것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였다. GLS의 경우, 오차항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이분산성 문제 해결에 문제 해결의 초점을 둘 수도 있고, 자기상관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우리 자료의 경우 시계열의 수(연도 수)와 횡단면의 수(국가 수)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고려하는 모형을 검토하였다. 즉, 횡단면적으로 이분산성의 문제가 존재하고, 시계열적으로도 AR(1)의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분석하였다.

## 2. 분석결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고용평등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비율과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 그리고 여성의 시간제고용 비율을 사용하였다.

모든 분석모형에서 시간제고용비율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낮아진

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결과와는 다른 것이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 결과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간제고용의 확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며, 시간제고용이 확대되면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시각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이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여성을 남성과는 다른 노동력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 무급의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지 않고 여성의 책임 하에 그대로 두면서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돌봄노동 양쪽에서 모두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출산을 회피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가 된다.

여성임금비는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적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자면 임금수준이 높은 여성은 출산으로 인하여 경력이 단절된다면 그 기회비용이 높아서 출산을 회피할 것으로 보는 것이 경제학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만약 출산이 고용의 장기적인 중단을 의미하지 않을 정도로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여성이라면 오히려 출산을 줄이거나 연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고용상의 성평등과 여성의 노동시장 안정적 편입을 성취한 국가에서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는 출산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자면, 고용평등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가설은 전체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가족정책지표들의 출산율과의 관련성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보육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출은 보육지원정책 중에서도 가장 일관성 있게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저출산대책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 정책으로, 아동복지 정책으로,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아깝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전체 GDP에서 가족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상과는 달리 출산율과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족수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여성의 고용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상되었던 바와는 달리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이 출산율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 이유는, 세금에 의존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보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미미할 수밖에 없어서 돌봄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 양육수당이나 주부임금에 의존하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기약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여성들이 이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충분한 유인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표 6〉 시계열회귀분석결과: 고용평등변수 포함

변수명	임의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FGLS 모형
<b>고용평등지표</b>			
여성비	.001(.005)	.006(.005)	-.002(.004)
여성임금비	.006(.003)*	.007(.004)*	.002(.002)
여성 시간제 고용비율	-.023(.003)***	-.030(.004)***	-.005(.002)*
_cons	1.891(.233)***	1.829(.241)***	1.787(.198)***
R-sq	within	0.2361	0.2383
	between	0.0036	0.0031
	overall	0.0105	0.0094
B-P LM test	chis(1)=1157.36***		
Hausman test		chi2(3)=20.51***	
Auto Correlation			.9536
Log likelihood			467.6116
Number of obs	285		
Number of groups	19		

〈표 7〉 시계열회귀분석결과: 고용평등변수+가족정책

변수명	임의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FGLS 모형
<b>고용평등지표</b>			
여성비	-.003(.005)	.000(.005)	-.000(.004)
여성임금비	.006(.003)*	.010(.004)*	.002(.002)
여성 시간제 고용비율	-.024(.003)***	-.033(.004)***	-.005(.002)*
<b>가족정책지표</b>			
가족수당	-.105(.026)***	-.160(.028)***	.007(.014)
보육서비스지출	.244(.065)***	.318(.070)***	.048(.036)
출산·부모휴가	-.000(.000)	-.000(.000)	-.000(.000)
_cons	2.138(.247)***	2.064(.241)***	1.720(.202)***
R-sq	within	.3325	.3390
	between	.0000	.0000
	overall	.0030	.0024
B-P LM test	chi2(1)=1060.37***		
Hausman test		chi2(6)=37.69***	
Auto Correlation			.9335
Log likelihood			458.94
Number of obs	285		
Number of groups	19		

〈표 8〉 시계열회귀분석결과: 고용평등+ 가족정책+ 경제여건

변수명	임의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FGLS 모형
<b>고용평등지표</b>			
여성비	.005(.006)	.019(.006)**	.003(.005)
여성임금비	.006(.003)*	.011(.004)**	.002(.002)
여성 시간제 고용비율	-.023(.003)***	-.034(.004)***	-.004(.002)*
<b>가족정책지표</b>			
가족수당	-.083(.028)**	-.159(.293)***	.017(.015)
보육서비스지출	.296(.065)***	.421(.072)***	.053(.036)
출산·부모휴가	.001(.000)	.001(.000)	-.000(.000)
<b>노동시장 및 경제여건</b>			
실업율	-.009(.005)*	-.002(.005)	-.011(.00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088(.024)***	-.101(.023)***	-.017(.016)
서비스업고용비중	.008(.005)	-.001(.005)	.005(.003)*
1인당 GDP	-.177(.065)**	-.177(.066)**	-.130(.048)**
_cons	1.688(.277)***	1.658(.274)***	1.584(.209)***
R-sq	within	.3980	.4240
	between	.0013	.0000
	overall	.0084	.0031
B-P LM test	chi2(1)=706.82***		
Hausman test		chi2(10)=54.67***	
Auto Correlation			.9275
Log likelihood			462.1202
Number of obs	285		
Number of groups	19		

## 제4장 우리나라의 현실: 취업여성의 출산조절 경험

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둔 기혼여성노동자는 일과 양육이라는 갈등적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여성민우회가 2003년에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이 자료는 초등학교 연령 이하의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장지연·부가청, 2003).

임신출산으로 인해 직장생활의 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와 직장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녀수를 조절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교차하면 <표 9>와 같은 4개의 집단을 이념형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이 된 여성응답자를 이러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얻은 분포는 <표 10>과 같다. 먼저 직장중단도 고려한 적이 있고 자녀수도 조절한 경우는 직장과 자녀 사이에서 매우 심한 갈등을 해온 여성들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만하더라도 전체 여성응답자의 약30% 정도가 되었다. 직장중단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자녀수나 출산시기를 조절한 여성도 17.8%로 나타났다. 단지 전체 기혼유자녀 여성근로자의 1/4만이 직장의 중단이나 자녀수의 조절을 경험하지 않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표 9>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숨겨진 선택: 이념형적 구분

		직장중단 고려	
		yes	no
자녀수 조절	yes	갈등형	경력중시형
	no	자녀중시형	안정형

〈표 10〉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여성의 숨겨진 선택: 응답자의 분포  
(단위: 명, %)

	직장중단 고려			전체
		yes	no	
자녀수·시기	yes	29.5	17.8	47.3
조절	no	27.6	25.1	52.7
	전체	57.1	42.9	100

조사대상 여성들이 출산당시 우려되는 점이 없이 출산휴가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의 26%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4%는 여러 가지 우려를 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에는 휴가이후 이전 업무로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감이나 승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경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표 11〉 출산휴가 이용시 우려되었던 점  
(단위: 명, %)

	1순위	2순위
회사의 퇴직권유	44(6.5)	8(2.1)
휴가후 이전 업무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여부	145(21.5)	59(15.4)
휴가기간동안 임금을 받을 수 없을까봐 불안	16(2.4)	20(5.2)
승진의 불이익	119(17.6)	77(20.1)
업무능력이 떨어질까 두려움	175(25.9)	171(44.5)
우려되는 점 없음	177(26.2)	49(12.8)
전체	676(100)	384(100)

출산양육을 책임진 여성들이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달리 말하자면, 직장양육을 양립하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매우 많다. 기혼유자녀여성이 경험하는 직장생활의 어려움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와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을 합쳐서 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비율을 살펴보면(표 12 참조), 자녀를 둔 기혼여성은 취업기회가 제한된다는 명제에 대하여 여성의 82.8% 남성의 75.6%가 동의하였다. 연수·교육·훈련 기회에 있어서의 제한이 존재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도 여성의 68.9% 남성의 63.5%가 이를 인정하였다. 배치상의 차별에 대해서는 여성의 60.5% 남성의 51.5%가 인정하였다. 승진상의 불이익이나 직접적인 임금차별도 존재한다는 의견이 여성의 약 50% 내외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지표들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왜 출산과 경제활동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노동시장 불평등의 측면에서 드러내 준다.

〈표 12〉 기혼여성이 경험하는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

	남성	여성	전체
취업기회 제한	402( 75.6)	666( 82.8)	1,068( 80.0)
교육·훈련기회 제한	337( 63.5)	554( 68.9)	891( 67.7)
장래성이 적은 쪽 배치	273( 51.5)	484( 60.5)	757( 57.0)
승진상 불이익	225( 43.0)	413( 52.2)	638( 48.6)
임금차별	199( 37.6)	361( 45.2)	560( 42.2)
전체	530(100.0)	799(100.0)	1,329(100.0)

##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낮다. 이것은 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고 ‘일과 자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유자녀 여성노동자의 3/4는 자녀수나 출산시기를 조절하거나 퇴직을 고려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두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원인을 찾아보아야한다. 첫째는 양육 책임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개별 가정에 맡겨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거의 전적으로 부과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기혼유자녀 여성은 현저하게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것이 출산과 경제활동의 지속을 저울질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이다. 여성근로자의 출산은 커리어관리뿐 아니라 고용유지 그 자체를 위협할 정도이며, 기혼유자녀 여성은 취업기회와 훈련, 배치, 승진 등 모든 고용상 기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는데 남녀노동자가 동의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 선진국들은 보육지원정책과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출산율과 노동시장의 여성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았다. 노동시장의 성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가장 단적인 지표인 성별 임금격차 역시 출산율과 높은 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반대로 격차가 큰 국가는 대체로 출산율에서 하위에 있는 국가들이었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도 출산율과는 뚜렷한 부의 관련성을 보인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 발견이다. 여성의 시간제근로 기회의 확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언제나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의 시간제근로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무급의 돌봄노동을 여전히 여성의 부담으로 남겨두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고, 노동시장이나 가정에서 성평등을 확실하게 추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제근로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은 여성고용확대와 출산장려의 어느 쪽으로도 성공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가족정책지표들의 출산율과의 관련성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보육서비스를 위한 재정지출은 보육지원정책 중에서도 가장 일관성 있게 출산율과 정의 관련성을 보인다. 저출산대책으로, 여성경제활동촉진 정책으로, 아동복지 정책으로, 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육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아깝지 않은 정책이다.

그러나 전체 GDP에서 가족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예상과는 달리 출산율과 강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가족수당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여성의 고용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상되었던 바와는 달리 돌봄노동에 대한 보상이 출산율의 증가로 귀결되지 않는 이유는, 세금에 의존하여 국가가 지불하는 보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하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미미할 수밖에 없어서 돌봄노동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결국 양육수당이나 주부임금에 의존하여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기약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여성들이 이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할 충분한 유인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고용평등의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가치를 인정하려는 시도보다는 보육서비스확대를 통하여 탈가족화하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것이 분석결과의 함의이다. 돌봄노동의 가치인정하고 부모권과 탈상품화를 강조하는 정책적 패러다임보다 여성의 노동권을 강조하면서 고용평등과 돌봄노



동의 탈가족화를 추진하는 정책적 패러다임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더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데에도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sup>주3)</sup>

노동시장의 성평등도와 출산율의 관련성에 관한 논의는 아직 가설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인과성을 논증할 만큼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간의 관련성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된다.

---

주3) 장지연 외 (2005)

## 참고문헌

- 김영옥·마경희, 「서문: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방향과 과제」,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pp.1~14.
- 김영옥·김경희, 「여성노동정책의 한계와 새 패러다임 모색」,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pp.105~138.
- 은기수,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02호, 2005, pp.25~35.
- 이재경, 「공사 영역의 변화와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 정책」,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 이재경 외, 『저출산의 젠더 분석 및 정책 대안 연구』,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
- 이혜경, 「21세기 복지국가 재편과 여성: 탈가부장적, 다원주의적 사회투자모형을 향하여」,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 장지연, 부가청,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통권 65호, 여성개발원, 2003.
- 장지연, 「복지국가에 대한 페미니스트 관점의 기여와 한계」, 『한국사회학』, 제38집 3호, 2004, pp.177~200.
- 조남훈, 「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정책적 함의」, 『저출산 현황과 정책적 대응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조한혜정, 「여성정책의 ‘실질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론: 여성의 경험과 관점에서 사회를 재편한다」,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pp.41~78.
- 허라금, 「보살핌 윤리에 기초한 성 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 여성정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pp.15~40.

- Alors Herlth, "The New Fathers: What Does it Mean for Children, Marriage, and for family Policy?",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299~320.
- Beat Fux, "Which Models of the Family are Encouraged or Discouraged by Different Family Policies?",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363~418.
- Berna Miller Torr & Susan E. Short,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2004, pp.109~130.
- Blau, F. & Ferber, M.,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1992.
- Chesnais, Jean-Claude,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2, No.4, 1996, pp.729~739.
- Connelly, R., "The Importance of Child care costs to Women's Decision making" in Blau (ed.) *The Economics of Child Care New York*, 1991.
- Fanz-Xaver Kaufmann and Hans-Joachim Schulze, "Comparing Family Life in the Frame of National Policies: An Introduction",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1~18.
- Franz-Xaver Kaufmann, "Politics and Policies towards the Family in Europe: A Framework and an Inquiry into their Differences and Convergences",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419~490.
- Gauthier, A. H.,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Oxford, 1996.
- Jonathan Grant et al.,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EUROPE, 2004.
- Joëlle E. Sleebos,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 and Policy Responses*, OECD, 2003.

- Klaus Peter Strohmeier, "Family Policy-How Does it Work?",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321~362.
- Mary Daly and Jane Lewis,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51 No.2,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0, pp.281~298.
- Meyers, Marcia and Gornick, Janet C. and Ross, Katherin E., "Public Childcar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Sainsbury, Diane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USA: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117~146.
- Meyers, Marcia K. and Gornick, Janet G., "Gendering Welfare State Variation: Income Transfers, Employment Supports, and Family Poverty", Liebert, Ulrike and Hirschman, Nancy J. (ed.)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SA: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pp.215~243.
- Nancy Folbre, *The Economics of the Family*,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1996.
- \_\_\_\_\_, "Sleeping Beauty Awakes: Self-Interest, Feminism, and Fertilit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cial research*, Summer 2004, Vol.71 No.2, 2004, pp.343~356.
- OECD, *Partnership and reproductive behaviour in Low-Fertility Countries*, OECD Working Paper, 2003.
- Peter McDonald,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6 No.3, 2000, pp.427~439.
- Peter McDonald, "Very Low Fertility: Its Causes and Its Remedies(저출산의 원인과 대책),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워크숍」,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인구학회, 2005, pp.1~40.
- Ronsen, Marit, "Assessing the impact of parental leave: effects o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Moss, P. and Devin, Fred (ed.) *PARENTAL LEAVE : PROGRESS OR PITFALL: NIDI/CBGS Publications*, 1999, pp.195~199.
- S. Philip Morgan,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Nov 2003; Vol.40, No.4, 2003, pp.589~603.

**Equality of Employment and Low Fertility**

**Chang, Jiyeon**

**(Korea Labor Institute)**

## Table of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53
Chapter 2. Causes of Low Fertility from a Gender Perspectives .....	56
Chapter 3.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levance of Birthrate and the Opportunity Structure in the Labor Market .....	63
Chapter 4. The Present Situation in Korea: Birth-control experience of women workers .....	81
Chapter 5. Summary and Significance in Policy .....	85
Reference .....	88

## List of Tables

〈Table 1〉	Total Fertility Rate (2003) .....	58
〈Table 2〉	Analysis Frame for Fixations of View on Gender .....	64
〈Table 3〉	Definition of Variables .....	67
〈Table 4〉	Level of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and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of the five nations at the bottom of birthrate ranking .....	71
〈Table 5〉	Level of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and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of the Top 5 nations in terms of birthrate .....	72
〈Table 6〉	Results of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Employment Equality Variable .....	78
〈Table 7〉	Result of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Employment Equality Variable+Family Policy .....	79
〈Table 8〉	Result of the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Employment Equality Variable+Family Policy+Economic Environment .....	80
〈Table 9〉	Hidden choice of women who work and raise their children: division by ideal types .....	82
〈Table 10〉	Hidden choice of women workers who work and raise their children: Distribution of respondents .....	82
〈Table 11〉	Things women worry about when they use maternity leave .....	83
〈Table 12〉	Level of agreement that married women experience about th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	84

## List of Figures

[Figure 1]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Fertility Rate .....	60
[Figure 2]	The Relationship of major variables, explaining low fertility and the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 .....	62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birthrate .....	73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age in comparison to men's and birthrate .....	73
[Figure 5]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women's part-time employment and birthrate .....	74



# Chapter 1: Introduction

## Section 1. Is Low Fertility a "Problem"?

Some argue that it is a problem to view low fertility as a "problem." The basis for such argument is that childbirth must be an individual's choice and must be respected as a right of self-determination; it is not something that a government may interfere into to promote more or less childbirth. A government's political interference is necessary when a group of individuals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in the entire nation or society. However, the methods of interference must not invade into an individual's right for self-determination. Nevertheless, the methods should change the environment for decision-making or provide more options to choose from so that it will result into an individual making a free decision. Such concerns relate to the infringement of an individual's decision-making right that must be due to the past experience on fertility policies (birth-control policy), which had infringed on the right of women for self-determination in their sexual life.

Could low fertility be considered as a negative effect to society resulting from an aggregated individual group action?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social problem for the breakdown of family values or the weakening of national power due to the reduction of the population. The breakdown of "family values" could mean different things to each individual and family. Moreover,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negative effect or cause to the entire society, but to many families it must still be within the bounds of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addition, the reduction of population itself is not the matter that causes fear. National power does not come from the size of the population. And the saying that "national power," within the definition of competitions and expansionism, can

not have more importance than the quality of people's life.

The unbalanced composition of population in terms of generations, which accompanies the process of population-reduction such as an aging society, could, however, cause a big problem to society.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which means less replacement to the existing population (total birthrate/total fertility of 2.1 persons) creates an inverted triangle population pyramid. It is expected that a more serious instability would show in the population pyramid of Korea because its birthrate has dropped to a critically low level from a high birthrate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An imbalanced population-composition in terms of generations increases the burden of the generation which provides labor and makes it harder to redistribute the income among generations. In such cases, the quality of the people's life and social welfare could be damaged for any generation, whether it be an old or a young generation. Therefore, it raises the necessity for the government to interfere into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as a social phenomenon through proper political measures.

## Section 2. Viewpoints on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n order to draw proper policy measures to resolve the low fertility problem, the causes must be precisely identified and one must adopt a new viewpoint so as not to go around the same results that were previously analyze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Welfare State Theory, which studies what kind of social welfare structure one society has and how it affects the people's life, has gained another upgraded level of explanation through new gender aspects which reflect on the female experience and the meaning of 'child care' by breaking away from using males as standardized laborers and explaining the effects from a male-centered study. Low fertility is a difficult problem which cannot be considered out of the welfare structure or roles of 'child care'; therefore, its significance will clearly be shown from the gender perspectives. This report will try to view low fertility problems, understand the phenomena, analyze its

causes and derive proper policy measures to resolve it.

### Section 3. Research questions

No one can object to the reason of women for avoiding childbirth due to the difficult environment in carrying out an economic activity and raising children simultaneously. The cause of the difficulty of women who work and bring up children at the same time could be discussed in two aspects: first, the level of socialization of child care is low and women are more responsible for raising children in the family because of the unshared responsibilities among family members, even between couples; and second, women postpone childbirth since they have lesser chances in having a stable job.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second aspect which has not yet been discussed with interest by previous studies.

First, section 2 will look into the causes of low fertility and review the political paradigm from a gender perspective and will derive an assumption on the relevance between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nd fertility. section 3 will prove the relevance between gender equality in employment and fertility through the materials, which is arrang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time-series data of the OECD Countries' total fertility rate and labor market indexes. section 4 will show the practical problems by proposing our experiential findings on the experiences in birth-control of Korean women who work and raise their children at the same time. section 5 will conclude the whole content of our research and will derive proper policy measures.

## Chapter 2. Causes of Low Fertility from a Gender Perspectives

### Section 1. Mechanism of Low Fertility Phenomenon Settlement

The decline in the level of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1.17 (2003) ~ 1.19 (2004) clearly means fewer women are giving birth today than before. By closely observing the facts, it is composed of two matters which were already concluded: first, the change in the time of giving birth (tempo); and second, the change in quantity (quantum). Compared to the past generations, the age of marriage and the first childbirth is very high for today's women and this is the primary factor for the lower fertility level. (Gi-Soo Eun, 2005) An important primary factor is the postponement of marriage and the birth of the first child, although the number of children itself of the married women decreased as well. The postponement of the first childbirth can only cause a de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in a lifetime.

In this writer's opinion, the primary factors for the postponement of the tempo (the time of giving birth) and the decreased quantum (the change in quantity) of married women only help to understand the matters which were already concluded by deconstructing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However, it cannot be considered itself as the 'cause' for low fertility. The cause for low fertility will be taken up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reasons for postponing marriage and childbirth and the reasons of married women for having fewer children. The change of the values on marriage and the values on children do

not provide enough explanation. It is not enough although it could be true that the values did change in their preference to have fewer children. It is necessary to have additional explanations on why the values changed, what relations the values and the objective social/economical changes form, and within those relations what led to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 Section 2. Discussion on the Causes for Low Fertility

Gi-Soo Eun (2005) has discussed two main causes for low fertility: one is the change in economic situations; and second, the change and detachment of consciousness. First of all, he mentioned that the economic reality, such as the increased financial burden in raising children, the lack of stability in the workplace, and the difficulty of arranging housing ownership, led to the postponement of marriage and giving birth. For the evidence of his explanation, he pointed out that, at the end of 1997, the total fertility rate in Korea dropped to its lowest level. Incidentally, it was also the period when Korea had a currency crisis, which was followed by an economic depression. It is an undeniable reality that men are asked to be responsible for the role of family provider; yet it is harder for them to maintain the ability to satisfy this role.

Economic depression could be the primary factor that caused the postponement of marriages and childbirths; it also temporarily lowered the total fertility rate. In the opinion of this writer, however, there is no direct relevance in the long-term decline of birthrate for most nations: from a higher level than the replacement rate to a lower level than the replacement rate. Therefore, it is not relevant to pin the blame on the economic depression for the low fertility in Korea. Furthermore, confusion might arise in providing solutions to the problem.

Gi-Soo Eun (2005) has pointed out that the second cause for low fertility is the serious of reality from the remaining consciousness on strong family values and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the primary factor why women avoid marriage and giving birth. Many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that any country with a low birthrate has strong familism, for exampl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Italy, and countr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 (Gi-Soo Eun 2005; McDonald 2005) (Refer to Table 1)

• **Group1**

- Nordic
- Western Europe  
(French-Dutch speaking)
- English-speaking

• **Group2**

- Southern Europe
- Western Europe  
(German-speaking)
- East Asia

〈Table 1〉 Total Fertility Rate (2003)

Group1 Countries	TFR	Group2 Countries	TFR
United States(2002)	2.01	Portugal	1.44
Iceland	1.99	Switzerland	1.41
Ireland	1.98	Malta	1.41
New Zealand	1.96	Austria	1.39
France	1.89	Germany	1.34
Norway	1.80	Spain	1.29
Denmark	1,76	Italy	1.29
Finland	1.76	Japan	1.29
Australia	1.75	Greece	1.27
Netherlands	1.75	Singapore	1.26
Sweden	1.71	Republic of Korea	1.19
United Kingdom	1.71	Hong Kong SAR	0.94
Luxembourg	1.63		
Belgium	1.61		
Canada(2002)	1.50		

Source: Referred to McDonal(2005)

Furthermore, these figures suggest that there are clear, existing difference in the opinion

between males and females in terms of their consciousness on gender equality or the value of family. (Tae-Hun Kim 2005; Jae-Gyung Lee 2005)

The responsibility in women's private dominion has not changed much despite the fact that dual-earner households have increased and it is impossible for men to solely carry out the role of breadwinner. "Vacancy of Care" occurs because men want to avoid the stigma of being child caregivers. Systematic Equality that offers equal opportunity in the public dominion does not apply to private dominion and the division of labor by gender in the private dominion has been accepted naturally and sensibly. As a result, women's double obligation and the 'delayed evolution' of men have made women to take alternative solutions such as marriage avoidance or postponement of pregnancy or giving birth. (Jae-Gyung Lee 2005)

The most important implications that I choose from the existing arguments mentioned above for the cause of low fertility are: the clear distinction of the pace by which men and women understand or become aware of gender equality. Furthermore, it is unavoidable for women to decide to be solely responsible for both childbirth and 'child care', since social systems or policies cannot catch up with the rapid changes in women's conscious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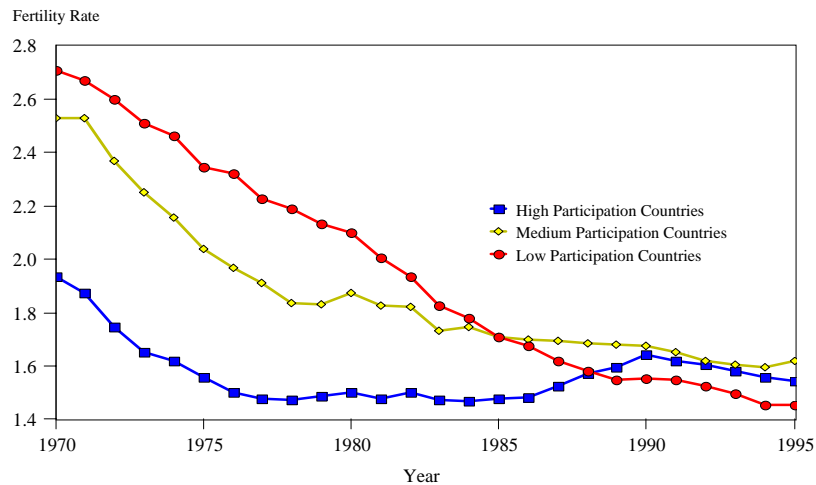
In the past, when 'child care' was allowed ideologically and the family value is commonly accepted, it was not easy for women to refuse the responsibility of giving birth and caring for many children. However, afte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women realized that they are living in a world where one's labor is generally exchanged for money. Therefore, paid labor and unpaid child caregiving are distinctly in contrast.

We commonly hear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s for the fertility is the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Economists explain that women must choose between paid labor and childbirth and childcare within time and budget constraints. This hypothesis has been supported by studies using individual level data (Becker 1965; Schultz 1974).

It is appropriate when the total fertility rate changes from the level of 5~6 to the level of 2~3 to support the argument which suggests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However, it may not be reasonable for the reality that occurs afterwards.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countries with relatively low economic participation, such as Korea, Spain, Italy, and Japan, have low birthrate. <sup>1)</sup>

On the other hand, countries like the Nordic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maintain a high birthrate as well as high level of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other words,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the birthrate are in reciprocal replacement-relations for some countries. These two variables, however, are not in replacement-relations for other countries. In a society where a woman must choose between 'the work' or 'the children,' one cannot expect to have both a high birthrate and a high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Figure 1]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Fertility Rate



1) \*Chenais(1996) has pointed out that any developing country with a low level of gender equality has a high birthrate. However, well-developed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gender equality have high birthrate. He refers to this as "feminist paradox". (2005. Lee Jae G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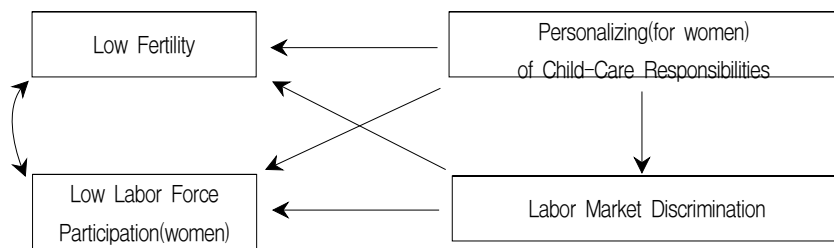
The participation of women i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fertility rate in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are both higher than our country, Korea. It can be said that while the advanced countries put effort in making economic activities and childbirth not just options for their female citizens, most Korean women suffer from dealing with a painful choice: 'work or children.' In reality, most women face every moment the choice between 'being a faithful mother to their children' and 'being a responsible career woman' despite the fact that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s not a matter of option anymore for most members of the social stratification.

Still, we have not improve of the social structure which forces women to choose between work and children even though the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 of women could be an obstacle to economic growth. Furthermore, the rapid aging process caused by low fertility threatens the stable reproduction of the society.

By the way, it is a reality that women's role of childbirth (reproduction) is a disadvantage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women in Korea belongs to the lowest group among the OECD countries. Korean women rank high in non standard positions, rank low among professionals and managers and there is a wide gap in the average wages of women and men. The women's child-care responsibility, which put women in-charge unilaterally, is the core of the problems causing such realities. The separate gender roles are deeply ingrained in families and the society in general to preserve a patriarchy, which means it represents the inferiority of women through interventions of persons in major positions, such as the exclusion of women, severe experiences and others, for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all economic fields of achievement. By maintaining that child-care matters are private matters and neglecting them as duties of every family member means that all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ll be completely charged to women. Also, it means that any woman who pursues an economic activity cannot enter the labor market with a fair chance for competition.

Personalizing child-care responsibilities involves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labor market, which causes both low fertility and low labor force participation among women.

[Figure 2] The Relationship of major variables, explaining low fertility and the low economic participation rate.



One could assume that the unfairness of the labor market could have a negative effect on birthrate and an important mechanism in postponing childbirth, both for women professionals or managers with high educational attainment and for women who work in other areas, such as sales person, manual worker, etc. Although they may have different reasons. Women workers who are professionals or hold managerial positions tend to postpone pregnancy and giving birth until they reach a more established position. Women who work in low positions generally postpone childbirth due to more practical problems such as the difficulty to continue working after giving birth. Therefore, the most common life plans of these women would be: to postpone giving birth while working; retire from work when they get pregnant; spend time in raising their children; and finally, return to a low-waged, job again. One could draw a hypothesis that any nation with a high level of gender equality can have a high birthrate by understanding the life plans mentioned above.

# Chapter 3: International Comparison of Relevance of Birthrate and the Opportunity Structure in the Labor Market

## Section 1. Framework for Analysis on the Fertility Policy Paradigm

Any birth-related policy of a country does not exist as an independent 'fertility policy (or population policy)'. It is integral to other social policies, such as the family policy, the labor market policy, child-welfare policy and others. Therefore, to understand the fertility policy paradigm, one must widely understand the variety of social policies in the country. In this repor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rtility policy paradigm will be found in the relevance of the family policy and the labor market policy. An ideologically tangible framework, which could be applied to each international case, will be suggested with additional check-list of existing independent fertility/population policy.

This writer suggests a table as a framework for analysis, as shown below, which seeks to analyze the variables of welfare policy or a welfare state by referring to two female experiences: as a child-caregiver and as a worker. (Jiyeun Chang 2004) This framework for analysis implies the simultaneous examination of paid labors and unpaid child-care work and suggests the examination of a dimension of civil rights as a right to access and freedom. In other words, active rights and passive rights.

〈Table 2〉 Analysis Frame for Fixations of View on Gender

		Dimension of Rights	
		Active Rights	Passive Rights
Types of Labor	Paid Labor	Labor Right	Free from Commercialization
	(Unpaid) Care Work	Parental Right	Free from Patriarchy

The right of access is a general idea to represent an active rights for paid-labor or unpaid child-care work. The right to paid labor is referred to as 'labor right,' while the right for unpaid child-care work is referred to as 'parental right.' The passive right is a dimension that represents the right to work unforcibly for either paid labor or unpaid child-care. Paid-labor, that is a degree of being free from the power of the market, is generally known as 'freedom from commercialization,' while unpaid child-care work, that is a degree of being free from the power of the patriarchal system, could be termed as 'freedom from patriarchy.'

A nation can take three possible policy measures when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occurs due to the low evaluation of the value of child care. One way is by trying to restore the traditional patriarchal value; however, nobody would believe that this method would work. The method that advanced countries have adopted is one of the following or a combination of two. The first method is supporting parental rights to directly nurture their children as parents.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pays an active compensation for child care. The general idea of providing a childcare allowance or wage for the fulltime housewives is an example of such compensation. It means it can be possible for women to become independent from their husbands through the method of evaluating the significance of unpaid labors which are still charged on women. However, in reality,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paid by the government is insignificant; therefore, the chances of securing a woman's independence by relying on such allowance is quite slim. The second method is taking away child-care work from the family, and then commercializing

child care or providing it as a public-service. The advanced countries have different degrees in executing related policies derived from the methods mentioned above; however, some have criticized that such policies have contributed in representing women as low-waged laborers.<sup>2)</sup>

Here are examples of some typical cases: Sweden is a country which exerts policy efforts in giving equal emphasis on labor rights and 'freedom from patriarchy' or parental rights with 'freedom from commercialization.' However, in a close analysis of the policy's emphasis, one could judge that the policy defines women as workers, and yet, the policy tries harder to work on the methods that provide child-care work as a public service.

For France, it seems hard to see which right is more emphasized for women, whether it is the labor right or the parental right, though it clearly states and emphasizes the right of choice and tries to pursue childcare as a 'freedom from patriarchy' with economic compensation. Germany could be considered given that it has a policy which gives more emphasis on parental rights than women's labor right or pursuing child-care work to become 'free from patriarchy.' However, it is a country which pays significant amount of compensation (as compared to others) for nurturing and family values still prevail. One of the differences in the population policy of France and Germany is that France clearly states a childbirth-promoting policy, while Germany does not clearly apply the childbirth-promoting policy to avoid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rom World War II.

The United States emphasizes women's right to work but does not intervene on child care. Therefore, child care does not become a public service but free from family as it goes into the market. However, this kind of method has a certain limitation on easing the women's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The policy paradigm of these nations can be

---

2) To discuss such pattern with the words from Fraser's Replaceable Gender Order (Fraser 2000), paying compensation for child care to support the parents' direct nurturing of their children can be considered as a Caregiver Parity Model. In comparison, a method which tries to pursue 'freedom from patriarchy' and tries women to become paid workers could be considered as a Universal Breadwinner Model. However, Fraser has suggested the Universal Caregiver Model which pursues for a lifestyle of sharing child care and paid labor by both men and women.

captured at least in part by variables such as the indexes of women workers in the labor force and expenses weighted on family policy. We will be able to estimate the effect of the gender-equality policy to the labor market, the level of direct compensation for child care from the government, and the level of child care work that is free for the family through child rearing service on the women's choice on childbirth.

## Section 2. Data and definition of variables

This study makes use of data with country as a unit because it aims to analyze how the social condition and systemic differences affect the level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ll data for the analysis came from the following four resources.

First of all,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CWS)" is a reconstructed data from the resources of OECD and ILO by Evelyne Huber, Charles Ragin, John D. Steohens with the support of Northwestern University and North Carolina University. This data set gives plenty of information about financial expenses per social category and offers supplementary indexes related to labor market and population. It has plenty of information for a 35-year period, from 1960 to 1994, on 19 nations.

Second, the data "1980-1998" 20 years of Social Expenditure (SOCX)" from OECD offers resources in 13 sections of social policies, which include public social expenses and essential and private expenses of 25 nations from 1980 to 1998. For analysis, I used the resources of 19 nations from 1980 to 1994 in family service, active labor market policy, and unemployment related.

Third,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 2 (CFBD)" is a recomposition of the resources of the OECD and individual nations by Professor Gauthier in Calgary University, Canada. It includes cash allowance, including family allowance, tax exemption by the number of children, and variables of population and economy of 22 OECD nations from 1970 to 2000.

Lastly,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 (WDI)" by the World Bank has renewed the data every year from 1960 until now. It gives information about the society, the economy, finance, resources, and environment of about 200 nations but centered on 28 main nations. I used major economic indexes of 18 nations from 1980 to 1994 for the analysis.

〈Table 3〉 Definition of Variables

	Name of Variables	Definition & Functions	Source	Source Materials
unit	Country	Name of country, 19 OECD countries		
time	Year	Year, 1980-1994 15 years		
Dependent Variables	Birthrate	Total Fertility Rate		
Employment Equality Variables	Rate of Female in Labor Rate	Rate of women among employees(%), (Women employee/Entire employee)×100	CWS	OECD, Labor Force Statistics
	Female's Wage Rate	Rate of women's wage by hour in manufacturing industry in comparison to men's: (Women's wage/Men's wage)X100	CFBD	ILO
	Rate of Part-Time Female Employment	Rate of part-time job among women workers		
Family Policy	Family Allowance	The remainder of maternity leave allowance among family related allowances, mostly children allowance takes large proportion; Rate in the total GDP(%)	SOCX	
	Expenditure of Childcare Svc.	Expenses for public Childcare services; Rate in the total GDP(%)	SOCX	
	Maternity leave	Period that puts before and after childbirth leaves and parental leave together.(unit: week)	CFBD	
Economic Environment (Control Variable)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Rate (%)	CWS	OECD, Labor Force Statistics
	Active Labor Market Policy	Expenses for active labor market policy; Rate in the total GDP(%)	SOCX	
	Proportion of Service ind.	Employees Engaged in Service industry out of total Employment	WDI	
	GDP	Real GDP per capita(US\$), 1985 basis	CWS	OECD

Commentary: Writer's Invention in Italic

Sources : CFBD: Gauthier, A.H. (2003), Comparative Family Benefits Database, Version 2 (University of Calgary)

CWS: Comparative Welfare States Data Set 1960-1994,

Assembled by Everlyne Huber, Charles Ragin, and John D. Stephens (1997)

ILO: Year book of Labour Statistics (Various years)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Tax/Benefit position of Production Workers

UNESCO: On-line statistics: [www.uis.unesco.org/en/stats/stats0.htm](http://www.uis.unesco.org/en/stats/stats0.htm)

USCB: United State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base, On-line: [www.census.gov/ipc/www](http://www.census.gov/ipc/www)

SOCX: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1980-1998

WDI: World Bank

### Section 3.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equality in employment and birthrate: Descriptive analysis.

From 1994, the best five nations with high birthrate are New Zealand, the United States, Sweden, Norway, and Australia, followed by Denmark and Finland . Nations with high birthrate are mainly Nordic and English-speaking nations of the New Continents, those that intend to be social-democratic welfare state. On the other hand, the five nations with the lowest birthrate turned out to be Italy, Germany, Switzerland, Japan, and Austria.

It is this study's hypothesis that the level of a nation's birthrate and the level of th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have a positive correlation. The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birthrate as the gender equality of in the labor market. <Table 4> and <Table 5> suggest the national rankings on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and labor market indexes that are expected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birthrate. Colored nations are the five highest and five lowest nations in the birthrate table. From these tables, we can briefly take a look at the level of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and th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in the nations with high or low birthrate.

Nations with high rate of expenses on child care service in the total GDP also turned out to have high birthrate. The top four nations with high expenses on child rearing service are Denmark, Sweden, Finland, and Norway, and these nations also belong to the Top seven nations with a high birthrate. Contrary to the general perception, as seen from the rate in comparison to GDP, the expense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rank in the middle, while the expenses of Italy, Japan, and Austria those with low birthrate were the lowest. Germany is an exception, as it spends much on child care serve but could not raise its birthrate. Except for Germany, it seems obvious that the expenses on child care service have a certain correlation to birthrate.

With the excep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rate of family allowance in the total GDP seems to be correlated to birthrate. Among advanced nations, those with small expenses for



family allowance have low birthrate. Family allowance (or children allowance) is well known for raising birthrate and solving children's poverty problem. However, the family allowance system is an obstacle for raising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easing the inequality of the sexes in the labor market. I think that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adopting family allowance because promoting childbirth is not included in all the policies.

Unlike the general assumptions, the period of leave for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do not show a certain relationship to birthrate. This is because the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have planned a short leave for childbirth and do not have any system that supports direct child rearing of infants by parents through a leave system. Another explanation for this is that the period of childbirth/child rearing leave itself may not positively affect birthrate. Nations with a longer leave period show disadvantages on women in the opportunity structure in the labor market. This can be interpreted this way: nations with a "women's labor" policy that give a longer leave period and maintain a wide wage gap between the sexes and high part-time work for women in the labor market may not be helpful in raising fertility 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and birthrate shows a very coherent result. First, the nations with high birthrate were the nations with a high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Sweden, Finland, Denmark, the United States, and Norway are the nations with the highest women economic participation rate and they are also included in the top nations with a high birthrate. On the contrary, the five nations at the bottom of the table with low birthrate were ranked outside the Top 10 among 18 nations in terms of 'women's participation' rate in labor marke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age gap between the sexes and birthrate is clearly shown. Nations with a high fertility rate such as Sweden, Norway,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show a relatively small wage gap between the sexes whereas nations with low birthrate such as Germany, Austria, Switzerland, and Japan show a bigger wage gap between the sexes. The fact that nations where women are treated fairly and play half the economic role

in society have a high birthrate has a very significant meaning to policy making.

The proportion of part-time workers among women did not show a clear relation to birthrate. The fact that women have part-time jobs can be easily understood because a part-time schedule allows them to combine their work and family life. Thus, the rate of part-time work will have positive relationship to birthrate.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women have a higher proportion of part-time jobs can suggest that the women's opportunity structure in the labor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men's and is unequal. Thus, the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will have a relationship with birthrate and wealth. From the result of my observation, I guess these two mechanisms work at the same time. Nations with low birthrate do not show a coherent tendency in terms of the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On the other hand, nations with a high birthrate show both extremes in the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We can understand that Australia, New Zealand, and Norway support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by encouraging women to work part-time.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are well known for securing the equality of the sexes in the labor market, and I assume that such national policy displays a positive effect on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the birthrate at the same time.

As I try to divide the nations into types, Sweden and Norway have a high rate of financial investment in child care services and showed high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As a result, they have both maintained a high level of birthrate and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exception. It would be logical if it has a low birthrate as it invests a relatively small amount on child care service and other social welfare. However, it has managed to maintain a high birthrate because it has succeeded in the emigration policy and gender equality in the labor market. In the other column, Japan and Italy both have a low level of socialization of child rearing and show a high inequality of the sexes in the labor market. As a result, they have not been able to solve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 and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Korea, in fact, is in a worse situation in all aspects than Japan or Italy, but the policy we should take seems to be obvious.

<Table 4> Level of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and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of the five nations at the bottom of birthrate ran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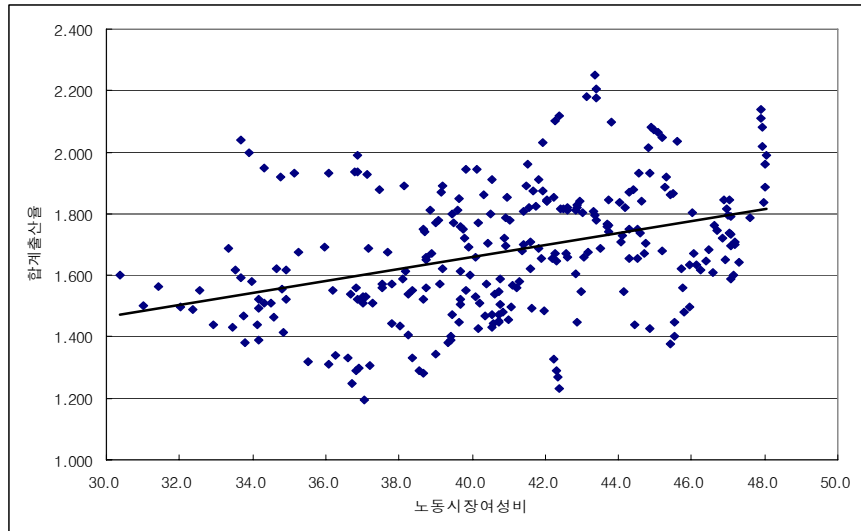
Ranking	Family allow	Childcare S	Maternity V	Female Rate	Wage Differ	of Part-Time
1	Luxemburg	Denmark	Finland	Sweden	Sweden	Netherlands
2	Netherlands	Sweden	France	Finland	Norway	Switzerland
3	New Zealand	Finland	Germany	Denmark	Australia	U.K.
4	Belgium	Norway	Austria	USA	Denmark	Australia
5	France	Germany	Sweden	Norway	Italy	Norway
6	Australia	Luxemburg	Denmark	Canada	USA	New Zealand
7	Finland	Netherlands	Netherlands	France	France	Japan
8	U.K.	Australia	Belgium	New Zealand	Finland	Belgium
9	Norway	Switzerland	Norway	U.K.	New Zealand	Canada
10	Sweden	Belgium	Japan	Belgium	Netherlands	Germany
11	Switzerland	New Zealand	New Zealand	Austria	Belgium	Denmark
12	Denmark	USA	Australia	Germany	Germany	Luxemburg
13	Germany	France	Italy	Australia	Austria	Austria
14	Canada	U.K.	Canada	Netherlands	U.K.	Sweden
15	Italy	Canada	U.K.	Switzerland	Switzerland	France
16	USA	Italy	Luxemburg	Japan	Luxemburg	Italy
17	Japan	Japan	USA	Italy	Canada	USA
18	Austria	Austria	Switzerland	Luxemburg	Japan	Finland

<Table 5> Level of child rearing support policy and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of the Top 5 nations in terms of birth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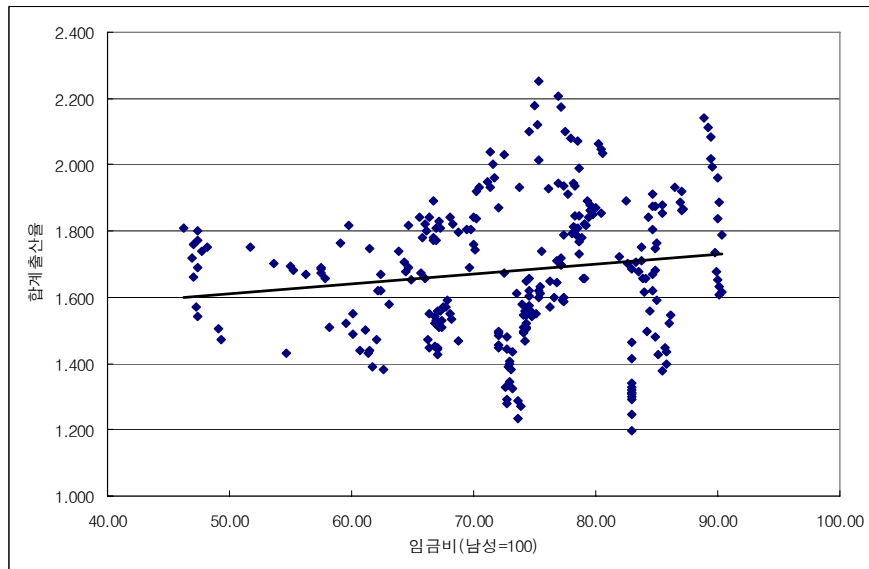
Ranking	Family allow	Childcare Svc	Maternity Vacati	Female Rate	Wage Differ	of Part-Time
1	Luxemburg	Denmark	Finland	Sweden	Sweden	Netherlands
2	Netherlands	Sweden	France	Finland	Norway	Switzerland
3	New Zealand	Finland	Germany	Denmark	Australia	U.K
4	Belgium	Norway	Austria	USA	Denmark	Australia
5	France	Germany	Austria	Norway	Italy	Norway
6	Australia	Luxemburg	Denmark	Canada	USA	New Zealand
7	Finland	Netherlands	Netherlands	France	France	Japan
8	U.K	Australia	Belgium	New Zealand	Finland	Belgium
9	Norway	Switzerland	Norway	U.K	New Zealand	Canada
10	Sweden	Belgium	Japan	Belgium	Netherlands	Germany
11	Switzerland	New Zealand	New Zealand	Austria	Belgium	Denmark
12	Denmark	USA	Australia	Germany	Germany	Luxemburg
13	Germany	France	Italy	Australia	Austria	Austria
14	Canada	U.K	Canada	Netherlands	U.K	Sweden
15	Italy	Canada	U.K	Switzerland	Switzerland	France
16	USA	Italy	Luxemburg	Japan	Luxemburg	Italy
17	Japan	Japan	USA	Italy	Canada	USA
18	Austria	Austria	Switzerland	Luxemburg	Japan	Finland

The diagram suggested below is a simple graph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 of the equality of the sexes in the labor market and birthrate, based on pooled resources from 18 OECD nations for a 15-year period.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the rate of women workers in comparison to men workers, and the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seem to be positively and weakly related to birthrate. However, I will analyze its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if such relation is still valid when other variables are controlled in the next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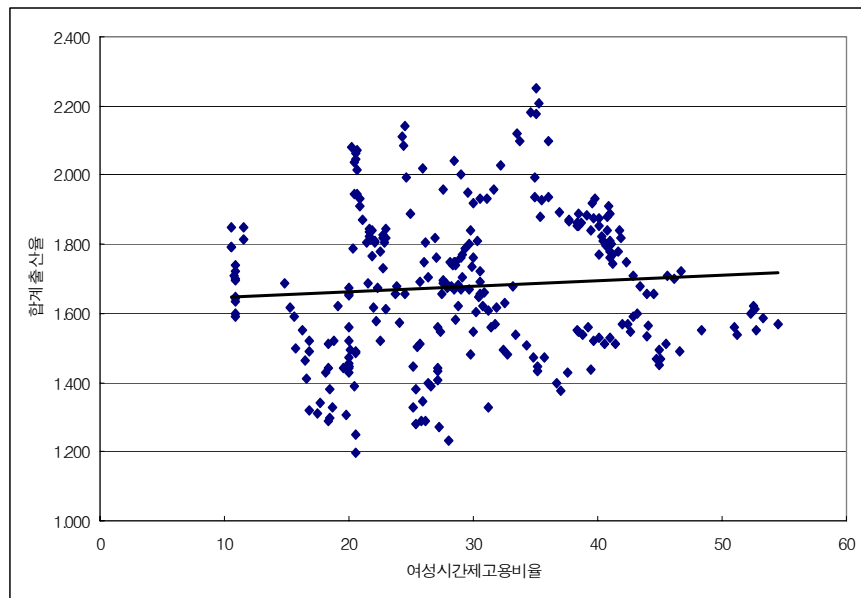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birthrate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women's wage in comparison to men's and birthrate



[Figure 5]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women's part-time employment and birthrate



## Section 4.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rate

### A. Model for Analysis

The basic model for analysis that I try to propose here is as follows:

$$\text{Numerical formula 1: } y_{it} = \beta_1 X_{it} + \beta_2 Z_{it} + \epsilon_{it}$$

$y_{it}$  is a subordinate variable that shows the total birthrate of the nation  $I$  in the year  $t$ .

The explanatory variable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wo groups:  $X_{it}$  is a variable of employment equality index that is assumed to affect birthrate, and  $Z_{it}$  is a variable of family policy that has been discussed as it affects birthrate. As I mentioned before, the variables we are concerned about are the expenses on childcare service, the total period for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the family allowance,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he women's wages in comparison to men's and the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that are bases for equality in employment. Controlled the rate of unemployment, the rate of employment in the service industry, and the GDP per person in terms of purchasing power.

As I mentioned before, the data used here is from 19 nations for a 15-year period. In other words, these were pooled cross-sectional, time-series data from each nation. If I assume the pooled data with Ordinary Least-Square Regression, I would not be able to utilize the information about the differences by nation and by year.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general the methods for analysis of panel data, two models can be applied: the Fixed Effect Model that presumes that the differences by nation can be explained entirely with the nations' own and fixed character and the Random Effect Model that presumes that the differences by nation are distributed arbitrarily by time.

The weak point of the Fixed Effect Model is that it only utilizes the dispersion through time by each nation, not the information about the differences by nation. The weak point of the Random Effect Model is that the presumed value leans on one side if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ol variable and the error item from the nation's special situ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I used two methods for examination. One is the Breush and Pagan LM to examine the existence of the arbitrary effect of a nation's special situation and the Hausman examination to see if the effect  $b$  of a nation's special situation is related to other explanatory variables, or if the assumed values of the fixed effect and arbitrary effect have respective differences as mentioned beforehand.

The result of the Breush and Pagan LM examinations showed that there are arbitrary effects. However, the result of the Hausman examination showed that the fixed effect by the nation's situation is correlated with other explanatory variables. Therefore, I conclude that the arbitrary model is not desirable.

Also, since the time-series data is relatively longer than the cross-sectional data, the time-series data is likely to show an auto-correlation, while the cross-sectional error item can have heteroskedasticity.

Therefore, as an assumption, I used the Generalized Least Square Regression or GLS to consider the dispersion of the error item as more random than the above-examined models in both the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data and analysis. I decided to expla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s the basis for this. In case of the GLS, we may focus on problem solving either for heteroskedasticity as the structure and character of error item or for auto-correlation. Our data do not show a big difference in the number of time-series (number of year) and cross-sectional (number of nation) data so that I examined a model that considers both problems first. That is, I considered that the heteroskedasticity problem exists in the cross-sectional data and auto-correlation or AR (1) exists in the time-series data, then I made the analysis.

## B. Results of the Analysis

I used the rate of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women's wages in comparison to men's wages, and the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as indexes to measure the position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and the level of equality in employment.

From all models for analysis, the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turned out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birthrate. In other words, the higher the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the lower the birthrate. This is different from what is generally expected and has an important meaning to policy making. In the majority of the nations, extended part-time employment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in policy making to support the coexistence of work and family and they expect that it would raise both women's employment and birthrate.

However, if we think about it based on a feminist perspective, this is obviously anticipated. To have a high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 means that women are considered as different workers from men, and it pulls out women from the labor market without socializing child care and still leaves child care as a woman's responsibility. In



such a social environment, women can be undervalued in both their wages and child care work. Therefore, avoiding childbirth becomes a rational choice.

The rate of women's wages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the right relationship to birthrate. That is, the smaller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the higher the birthrate. From an individual perspective, women who earn high wages may avoid pregnancy or childbirth as an economic excuse because childbirth interrupts their career and it involves costly expenses. However, if women are stably incorporated into the labor market, which means childbirth would not entail long-term discontinuance of employment, women may not need to reduce or postpone pregnancy or childbirth. That could be the reason why women from nations that accomplished the equality of sexes in employment and have incorporated women into the labor market can choose to become pregnant and give birth more comfortably.

A variable that shows the rate of women in the labor market in terms of quantity did not show a statistical correlation to birthrate. However, if we think collectively, we may consider that the hypothesi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equality in employment, the higher the birthrate, can be supported from these results.

In the other column, the correlation between family policy indexes and birthrate has an important meaning. Expenses on childcare service show the most coherent and positive relationship to TFR (Total Fertility Rate) among child rearing support policies. To counter low birthrate, to promote policies on women's economic participation and children's welfare, it would be worth investing on child care service as a policy that will definitely show a positive effect.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rate of family allowance in the total GDP shows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to birthrate. The fact that family allowance, which can mean compensation for women's child care work affects birthrate negatively has a significance to policy making. Direct compensation for women's child care work negatively affects the expansion of women's employment and does not help in raising the birthrate.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the compensation for child care did not result in raising the birthrate. I

think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is too small, although the advanced countries give a relatively higher amount it still isn't a sufficient compensation. As a result, it is unrealistic to become dependent on child-rearing allowance or housewife wage because the compensation is not attractive enough for women to take this route.

〈Table 6〉 Results of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Including Employment Equality Variable

Name of Variable		Random Effects Model	Fixed Effects Model	FGLS Model
<b>Employment Equality Variable</b>				
Rate of Female		.001(.005)	.006(.005)	-.002(.004)
Female's Wage Rate		.006(.003)*	.007(.004)*	.002(.002)
Rate of Part-Time Female Employment		-.023(.003)***	-.030(.004)***	-.005(.002)*
_cons		1.891(.233)***	1.829(.241)***	1.787(.198)***
R-sq	within	0.2361	0.2383	
	between	0.0036	0.0031	
	overall	0.0105	0.0094	
B-P LM test		chis(1)=1157.36***		
Hausman test		chi2(3)=20.51***		
Auto Correlation				.9536
Log likelihood				467.6116
Number of obs		285		
Number of groups		19		

〈Table7〉 Result of the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Employment Equality Variable+Family Policy

Name of Variable		Random Effects Model	Fixed Effects Model	FGLS Model
<b>Employment Equality Variable</b>				
Rate of Female		-.003(.005)	.000(.005)	-.000(.004)
Female's Wage Rate		.006(.003)*	.010(.004)*	.002(.002)
Rate of Part-Time Female Employment		-.024(.003)***	-.033(.004)***	-.005(.002)*
<b>Family Policy Variables</b>				
Family Allowance		-.105(.026)***	-.160(.028)***	.007(.014)
Expenditure for Nurturing Service		.244(.065)***	.318(.070)***	.048(.036)
Maternity Vacation		-.000(.000)	-.000(.000)	-.000(.000)
_cons		2.138(.247)***	2.064(.241)***	1.720(.202)***
R-sq	within	.3325	.3390	
	between	.0000	.0000	
	overall	.0030	.0024	
B-P LM test		chi2(1)=1060.37***		
Hausman test			chi2(6)=37.69***	
Auto Correlation				.9335
Log likelihood				458.94
Number of obs		285		
Number of groups		19		

〈Table 8〉 Result of the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Employment Equality Variable+Family Policy+Economic Environment

Name of Variable	Random Effects Model	Fixed Effects Model	FGLS Model
<b>Employment Equality Variable</b>			
Rate of Female	.005(.006)	.019(.006)**	.003(.005)
Female's Wage Rate	.006(.003)*	.011(.004)**	.002(.002)
Rate of Part-Time Female Employment	-.023(.003)***	-.034(.004)***	-.004(.002)*
<b>Family Policy Variables</b>			
Family Allowance	-.083(.028)**	-.159(.293)***	.017(.015)
Expenditure for Nurturing Service	.296(.065)***	.421(.072)***	.053(.036)
Maternity Vacation	.001(.000)	.001(.000)	-.000(.000)
<b>Labor Market &amp; Economic Environment</b>			
Unemployment Ratio	-.009(.005)*	-.002(.005)	-.011(.003)***
Active Labor Market Policy	-.088(.024)***	-.101(.023)***	-.017(.016)
Rate of Service Employment	.008(.005)	-.001(.005)	.005(.003)*
GDP per Person	-.177(.065)**	-.177(.066)**	-.130(.048)**
_cons	1.688(.277)***	1.658(.274)***	1.584(.209)***
R-sq	within	.3980	.4240
	between	.0013	.0000
	overall	.0084	.0031
B-P LM test	chi2(1)=706.82***		
Hausman test		chi2(10)=54.67***	
Auto Correlation			.9275
Log likelihood			462.1202
Number of obs	285		
Number of groups	19		

## Chapter 4: The Present Situation in Korea: Birth-control experience of women workers

What choice do married female workers with children make for work and child rearing? To answer this question, let's take a look at the research outcome for the year 2003 that 'Korean Women link' investigated. This research investigated married men and women who both work and raise their children under 12 years old. (Chang Jiyeun, Bu Ka Cheong 2003).

The two questions in the survey are if they have considered stop working due to pregnancy or childbirth and if they have practiced birth-control to keep their job. The results a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as seen in <Table 9>.

A distribution chart of the women respondents is presented in <Table 10>. First of all, women who have considered discontinuing work and practiced birth control can be considered as those who had strong mental conflict between work and child rearing. This case accounted for 30% of the entire respondents. Those who did not consider discontinuing work but practiced birth control accounted for 17.8%. Only 1/4 of the entire married women workers live stable lives, without experiencing both discontinuing work and birth control.

〈Table 9〉 Hidden choice of women who work and raise their children: division by ideal types

	Considered discontinuing work		
		yes	no
Controlling the number of children	yes	<b>Conflict type</b>	<b>attach importance to career type</b>
	no	<b>attach importance to children type</b>	<b>stable type</b>

〈Table 10〉 Hidden choice of women workers who work and raise their children: Distribution of respondents (unit, person, %)

	Considered of discontinuing work			Total
		yes	no	
Controlling number of children and time	yes	29.5	17.8	47.3
	no	27.6	25.1	52.7
	Total	57.1	42.9	100

Only 26% of the entire women respondents used their maternity leave without worry at the time of childbirth, whereas 76% were worried about several issues. Among these women, many were uncertain if they could return to their previous work after going into a maternity leave and worried about their disadvantages in terms of promotion. This result shows that in reality, maternity leave became a hindrance to the career of women workers, although maternity leave is guaranteed by law.

<Table 11> Things women worry about when they use maternity leave  
(unit: person, %)

	ranking 1	ranking 2
Be advised to resign	44(6.5)	8(2.1)
Whether they can continue previous work after using maternity leave	145(21.5)	59(15.4)
Worried about not receiving wages during leave	16(2.4)	20(5.2)
Disadvantage in promotion	119(17.6)	77(20.1)
Worried about working capacity gets worse	175(25.9)	171(44.5)
Not worried about anything	177(26.2)	49(12.8)
Total	676(100)	384(100)

There are many resources that show the kinds of difficulties that women, who are responsible for childbirth and child rearing, have in their workplace, or in other words how difficult it is to work and raise a child at the same time. The difficulties that married women who have children experience at work are measured in 4 point Likert scale. Full agreement and general agreement were put together as seen in <Table 12>. For the proposition that married women who have children have limited opportunity in employment, 82.8% of the women and 75.6% of the men agreed. For the opinion that married women who have children have limited opportunities to study, undergo training and gain education, 68.9% of the women and 63.5% of the men agreed. For the discrimination for disposition, 60.5% of the women and 51.5% of the men agreed. About 50% of the women agreed that there are disadvantages in terms of promotion and direct wage discrimination. Such statistical indexes show why women in Korea have to choose between childbirth and economic activity because of the unequal situation in the labor market.

〈Table 12〉 Level of agreement that married women experience about th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unit: person, %)

	Men	Women	Total
Limited opportunity in employment	402(75.6)	666(82.8)	1,068(80.0)
Limited training and educational opportunity	337(63.5)	554(68.9)	891(67.7)
Disposition to where is less prospected	273(51.5)	484(60.5)	757(57.0)
Disadvantage in promotion	225(43.0)	413(52.2)	638(48.6)
Wage discrimination	199(37.6)	361(45.2)	560(42.2)
Total	530(100)	799(100)	1,329(100)



## Chapter 5: Summary and significance in policy

Both birthrate and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in Korea are low in comparison to advanced countries. This reflects the present social condition, that the circumstances are not good for women to work and raise a child at the same time so that women are forced to choose between work and children. From the findings of this investigation on the present condition, 3/4 of women workers are conflicted if they will consider discontinuing work or control the number of children they will have and the time to have a child.

We should look for the causes for the two sides of this reality. First, the responsibility for child rearing is not shared by the society but placed on individual families, particularly on women. Second, married women with children are notably disadvantaged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and this matter is already accepted, which forces women to postpone childbirth as they continue their economic activities. Pregnancy and childbirth threaten the career of women workers and the continuance of their employment. Both women and men workers agree that married women with children are disadvantaged in terms of employment, training, disposition, promotion and all kinds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dvanced countries that maintain a relatively high rate of childbirth have certain common factors in terms of having a support policy for child rearing and have solved the inequality problem in the labor market. It was verified again that birthrate and the rate of women workers in the labor market have a correlation with wealth. Countries that have a high rate of women workers in the labor market also have a high birthrate. The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the most direct index of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shows that it has a relationship with birthrate and wealth. Countries that have a small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tend to have a high birthrate whereas countries that have a bigger

w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tend to have a low birthrate.

The number of women part-time worker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irthrate. Countries that have a high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also have a low birthrate. This is a very important policy finding. Having more opportunities for part-time work has been considered as a priority in policy making as it allows women to work and raise their children at the same time. However, having a higher rate of women part-time workers means that women bear the burden of unpaid child rearing. It is also an index that reflects the reality that the labor market and families do not intend to pursue the gender equality. As a result, the policy that gives more weight to part-time work may not succeed in either raising women's employment or encouraging childbirth.

The relationship of birthrate in family policy index has an important meaning. Among child rearing support policies, the expenses for childcare service shows an positive and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birthrate. To counter low birthrate and to promote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children's welfare as a policy, it would be worth it to invest on childcare service for its valuable and positive effect.

However,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rate of family allowance in the total GDP shows a strong negative correlation to birthrate. The fact that family allowance, which can mean compensation for women's child care work affects birthrate negatively has asignificance to policy making. Direct compensation for women's child care work negatively affects the expansion of women's employment and does not help in raising the birthrate.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the compensation for child care did not result in raising the birthrate. I think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is too small, although the advanced countries give a relatively higher amount it still isn't a sufficient compensation. As a result, it is unrealistic to become dependent on child-rearing allowance or housewife wage because the compensation is not attractive enough for women to take this route.

In summary, the higher the equality of sexes in employment, the higher the birthrate. The significant meaning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or child care, unburden

the family by improving child-rearing service to raise birthrate more effectively, instead of the government paying direct compensation for recognizing this value. It seems that the policy paradigm that pursues the unburdening of families from child care work and equality of the sexes in employment go together, with emphasis on women's right to work as a more superior policy paradigm that recognizes child care, the parents' right and freedom from commercialization. It is obvious that such a policy paradigm will be highly effective in encouraging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sup>3)</sup>

The discuss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equality of the sexes in the labor market and birthrate is still an assumption and not enough study has been done to prove their causal relationship. However, there seems to be a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nd I conclude that additional researches must be undertaken in this area.

---

3) Chang, Jiyeun and others (2005)

## References

- Kim Yeong Ok Ma Gyeong Hee, "Introduction: New paradigm in women policy-Directions and tasks",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women polic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4, pp.1 ~14.
- Kim Yeong Ok Kim Gyeong Hee, "Limitation in women labor policy and searching for a new paradigm,"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women polic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4, pp.105 ~138.
- Eun Gi Soo, "Transference from unmarried to married -Meaning of current low birthrate in our country-", *Health and Welfare Forum*,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Edition 102, 2005, pp.25 ~35.
- Lee Jae Gyeong, "Change of private and public field and family policy that overcomes 'family',"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women polic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4.
- Lee Jae Gyeong and others, *Analysis on gender for low birth rate and research on alternative plan in policy*, Presidential inquiry Committee on Aging and Future Socie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 Lee Hye Gyeong, "Reorganization of 21st century welfare state and women: Freedom from patriarchy, towards a pluralistic social investment model,"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women polic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4.
- Jang Ji Yeon, Bu Ga Cheong, "Hidden choice: Work and child rearing of married women workers," *Research on Women*, Vol.65,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03.
- Jang Ji Yeon, "Contribution and limitation of feministic view for welfare state," *Korean*

- Sociology*, Series 38 Vol.3, 2004, pp.177~200.
- Jo Nam Hun, "Present condition of measures for low birth rate in Asian nations and their significant meaning in policy," *Present condition of low birth rate and counter-measure in policy*, Committee on Aging and Future Society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5
- Jo Han Hye Jeong, "An essay for converting paradigm for women policy practically: Reorganizing society from women's experience and point of view,"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women polic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4, pp.41~78.
- Heoh Ra Geum, "Searching for mainstream gender paradigm in policy based on childcare ethics," *Establishing a new paradigm for women policy in Korea*,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04, pp.15~40.
- Alors Herlth, "The New Fathers: What Does it Mean for Children, Marriage, and for family Policy?,"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299~320.
- Beat Fux, "Which Models of the Family are Encouraged or Discouraged by Different Family Policies?"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363~418.
- Berna Miller Torr & Susan E. Short,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2004, pp.109~130.
- Blau, F. & Ferber, M.,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1992
- Chesnais, Jean-Claude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2, No.4, 1996, pp.729~739.
- Connelly, R. "The Importance of Child care costs to Women's Decision making" in Blau (ed.) *The Economics of Child Care* New York, 1991.
- Fanz-Xaver Kaufmann and Hans-Joachim Schulze, "Comparing Family Life in the Frame of

- National Policies: An Introduction",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1 ~18.
- Franz-Xaver Kaufmann, "Politics and Policies towards the Family in Europe: A Framework and an Inquiry into their Differences and Convergences",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419 ~490.
- Gauthier, A. H., *The state and the family*: Clarendon Press, Oxford, 1996.
- Jonathan Grant et al.,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Causes, Consequences, and Policy Options*, RAND EUROPE, 2004.
- Jo lle E. Sleebos,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 and Policy Responses*, OECD, 2003.
- Klaus Peter Strohmeier, "Family Policy-How Does it Work?", Franz-Xzver Kaufmann et al. eds., *Family Life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Vol.2,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321 ~362.
- Mary Daly and Jane Lewis,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51 No.2,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2000, pp.281 ~298.
- Meyers, Marcia and Gornick, Janet C. and Ross, Katherin E., "Public Childcar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Sainsbury, Diane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USA: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117 ~146.
- Meyers, Marcia K. and Gornick, Janet G., "Gendering Welfare State Variation: Income Transfers, Employment Supports, and Family Poverty," Liebert, Ulrike and Hirschman, Nancy J. (ed.)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SA : Rutgers University Press, 2001, pp.215 ~243.
- Nancy Folbre, *The Economics of the Family*,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1996, "Sleeping Beauty Awakes: Self-Interest, Feminism, and Fertilit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Social research*, Vol. 71 No. 2, Summer 2004, pp.343 ~356.
- OECD, *Partnership and reproductive behaviour in Low-Fertility Countries*, OECD

Working Paper, 2003.

- Peter McDonald,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26 No.3, 2000, pp.427~439.
- Peter McDonald, "Very Low Fertility: Its Causes and Its Remedies", *International Workshop on Population Policy in the Age of Low Birthrate*,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005, pp.1~40.
- Ronsen, Marit, "Assessing the impact of parental leave: effects o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Moss, P. and Devin, Fred (ed.) PARENTAL LEAVE: PROGRESS OR PITFALL: NIDI/CBGS Publications, 1999, pp.195~199.
- S. Philip Morgan, "Is Low Fertility a Twenty-First-Century Demographic Crisis?", *Demography*, Vol.40, No.4, Nov. 2003, pp.589~603.